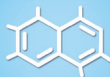


OECD Health Data



2015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ONTENTS

제 I 장 **건강상태** 13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 의한 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7. 자살에 의한 사망률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제 II 장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47

9. 주류 소비량
10. 흡연인구 비율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제 III 장 **보건의료자원** 59

12. 총 병원병상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
14. 임상 의사
15. 임상 간호사
16. CT 스캐너
17. MRI 장비
18. 의학계열 졸업자

제Ⅳ장 보건의료이용 81

- 19. 의사의 외래진료
- 20. 치과 의사의 외래진료
-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 22. 제왕절개 건수
- 23. 신장이식 건수

제Ⅴ장 보건의료비용 97

- 24. GDP대비 경상의료비
- 25.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등 지출 비율
-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제Ⅵ장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113

- 29. 의약품 소비량
- 30. 의약품 판매액

제Ⅶ장 장기요양 121

-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OECD Health Data 2015 요약표 : 2013년 기준*

구분	
건강 상태	1. 기대수명(년)
	2. 영아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명)
	3.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7. 자살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보건 의의료 결정 요인	9. 주류 소비량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순수알코올 리터)
	10. 흡연인구 비율(15세 이상 인구, %)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보건 의료 자원	12. 총 병원병상(인구 1,000명당)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인구 1,000명당)
	14. 임상 의사(인구 1,000명당)
	15. 임상간호사(인구 1,000명당)
	16. CT 스캐너(인구 100만 명당)
	17. MRI 장비(인구 100만 명당)
	18. 의학계열 졸업자(인구 10만 명당)
	19.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보건 의료 이용	20. 치과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일)
	22. 제왕절개 건수(출생아 1,000명당)
	23. 신장이식 건수(인구 10만 명당)
	24. GDP대비 경상의료비(%)
보건 의료 비용	25.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등 지출 비율(%)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US\$ PPP)
의약품 시장**	30. 의약품 총 판매액(1인당 US\$ PPP)
장기 요양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 본 자료는 각 국가의 통계작성 사정에 따라 2013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됨.

** 의약품 시장 자료는 2012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5년 11월 발표(OECD) 예정임.

한국	OECD 평균	최대	최소
81.8	80.5	83.4	74.6
3.0	4.1	13.0	1.8
183.3 ^[12]	205.4	286.3	117.1 ^[12]
76.5 ^[12]	66.0	136.7 ^[10]	37.1 ^[12]
43.2 ^[12]	116.9	404.4 ^[10]	35.4
75.3 ^[12]	67.3	109.0	27.7
29.1 ^[12]	12.0	29.1 ^[12]	2.6
35.1	69.2	89.6	35.1
8.7	8.9	12.2 ^[11]	1.4
19.9	18.8	38.9 ^[10]	10.7
31.5	56.2	71.3 ^[12]	24.1
11.0	4.8	13.3	1.6
6.2	3.3	7.9	1.6
2.2	3.2	5.0	2.2
5.2	9.8	17.4	2.6
37.7	24.8	101.3 ^[11]	5.3
24.5	14.3	46.9 ^[11]	2.1
8.0	11.2	20.3	5.1
14.6	6.8	14.6	2.6
1.9	1.1	3.2 ^[12]	0.0 ^[12]
16.5	8.3	30.6	3.9
360.0 ^[12]	254.4	503.6	154.3
3.5	3.4	5.5	0.0
6.9	8.9	16.4	5.1
55.9	72.7	87.6	46.1
36.9	19.5	44.7	5.3
20.6	16.6	30.6	6.3
2,275	3,453	8,713	941
499.3 ^[12]	409.0	640.8 ^[12]	143.9 ^[12]
54.2	51.8	72.1	18.0

OECD Health Data 2015

주요내용(요약)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8년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80.5년)보다 1.3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의 증가 수준(1.2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3.4년을 기록하였으며, 스페인(83.2년)과 스위스(82.9년)가 뒤를 이었음.
 - 멕시코와 헝가리는 각각 74.6년, 75.7년을 기록하여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짧음.
- * OECD에서 제시한 전체기대수명은 남 · 여 기대수명의 평균임.
-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2012년)으로 OECD 평균(12.0명)에 비해 17.1명 높았음.
 -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6명)와 그리스(4.2명, 2012년)이며, 헝가리(19.4명)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함.

-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연율은 19.9%로 OECD 평균(18.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여성 흡연율(4.3%)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36.2%)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43.7%, 2010년), 터키(37.3%,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그리스(38.9%, 2010년)가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였으며, 스웨덴(10.7%)은 흡연율이 가장 낮았음.
 - 2008년과 2013년 사이 체코와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흡연율이 줄었음.

- 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1.0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보다 2.3배 많음.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병상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당 총 병원병상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3병상)이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총 병원병상수가 많았음.

-
-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3.2명)보다 1.0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임상 의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0명을 기록하였으며,
- 우리나라는 멕시코(2.2명), 폴란드(2.2명), 일본(2.3명, 2012년)과 함께 임상 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 미만으로 낮음.

* 임상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함.

- 우리나라의 임상 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 (9.8명)의 절반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스위스(17.4명), 노르웨이(16.7명), 덴마크(16.3명, 2012년), 아이슬란드(15.5명)는 인구 1,000명당 15명 이상의 많은 간호 인력을 확보함.
- 멕시코(2.6명), 이스라엘(4.9명)은 5명 미만의 적은 간호 인력수를 기록함.

* 임상 간호사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함.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6회로 OECD 평균(6.8회)보다 2.1배 많음.

- 2008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

횡수는 12.9회로 5년간 1.7회 늘어난 반면, OECD 평균은 2008년과 2013년이 동일함.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 횡수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12.9회(2012년)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진찰 횡수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환자 1인당 입원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는 16.5일로 OECD 회원국 평균(8.3일)보다 2배 가까이 길었음.

- OECD 회원국 중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30.6일을 기록함.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평균병원재원일수가 긴 국가임.
- 터키(3.9일)와 멕시코(4.0일), 덴마크(4.3일)는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5일 이하로 OECD 회원국 중 짧은 재원일수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대비 6.9%로 OECD 회원국 평균(8.9%)보다 낮음.

- 2008년에 비해 2013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1.1%p 증가하여, 같은 기간 OECD 평균(0.6%p)보다 높은 증가폭을 기록함.

-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은 GDP대비 경상의료비가 16.4%로 가장 높은 지출 비율을 기록하였음.
- OECD 회원국 중 터키(5.1%), 에스토니아(6.0%), 멕시코(6.2%) 폴란드(6.4%), 룩셈부르크(6.6%, 2012년), 한국(6.9%)은 GDP대비 경상의료비가 7% 미만으로 낮았음.

■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5.9%로 OECD 회원국 평균(72.7%)보다 낮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58.0%까지 늘어남. 그러나 OECD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함.

〈경상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 국	54.9	56.4	56.7	56.5	57.6	58.0	57.2	56.3	55.9
OECD 평균*	71.3	71.7	71.8	72.5	73.2	73.0	73.1	72.7	72.7

* OECD 평균은 해당년도 수치가 없는 경우 해당년도 기준시점의 최근접년도 수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87.6%), 영국(86.6%), 노르웨이(85.0%)로 85% 이상을 공공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음.
- 칠레(46.1%), 미국(48.2%)은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50% 미만으로 낮은 국가임.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54.2개로 OECD 평균(51.8개)보다 다소 높음.
 - 2008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29.1개로 5년 사이 1.9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남.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0.9병상 줄어듦.
 -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벨기에로 72.1개(시설침상: 2012년)를 기록하였음.

OECD Health Data



2015



제 I 장 건강상태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 의한 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7. 자살에 의한 사망률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I. 건강상태



1. 기대수명*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8년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80.5년)보다 1.3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의 증가 수준(1.2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3.4년을 기록하였으며, 스페인(83.2년)과 스위스(82.9년)가 뒤를 이었음.
 - 멕시코와 헝가리는 각각 74.6년, 75.7년을 기록하여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짧음.

* OECD에서 제시한 전체기대수명은 남 · 여 기대수명의 평균임.

〈표 1〉 기대수명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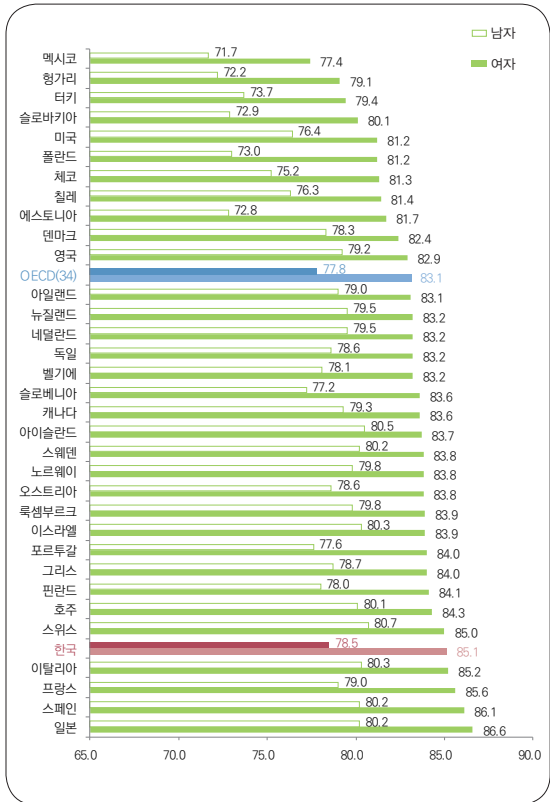
	2008			2013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81.5	79.2	83.7	82.2	80.1	84.3
오스트리아	80.5	77.7	83.3	81.2	78.6	83.8
벨기에	79.8	76.9	82.6	80.7	78.1	83.2
캐나다	80.7	78.4	83.0	81.5	79.3	83.6 [2011]
칠레	78.1	75.2	81.0	78.8	76.3	81.4
체코	77.3	74.1	80.5	78.3	75.2	81.3
덴마크	78.8	76.5	81.0	80.4	78.3	82.4
에스토니아	74.2	68.9	79.5	77.3	72.8	81.7
핀란드	79.9	76.5	83.3	81.1	78.0	84.1
프랑스	81.3	77.8	84.8	82.3	79.0	85.6
독일	80.2	77.6	82.7	80.9	78.6	83.2
그리스	80.3	77.5	83.0	81.4	78.7	84.0
헝가리	74.2	70.0	78.3	75.7	72.2	79.1
아이슬란드	81.7	80.0	83.3	82.1	80.5	83.7
아일랜드	80.2	77.9	82.4	81.1	79.0	83.1
이스라엘	81.0	79.0	83.0	82.1	80.3	83.9
이탈리아	81.6	78.9	84.2	82.8	80.3	85.2
일본	82.7	79.3	86.1	83.4	80.2	86.6
한국	79.9	76.5	83.3	81.8	78.5	85.1
룩셈부르크	80.6	78.1	83.1	81.9	79.8	83.9
멕시코	74.1	71.3	76.9	74.6	71.7	77.4
네덜란드	80.5	78.4	82.5	81.4	79.5	83.2
뉴질랜드	80.5	78.4	82.5	81.4	79.5	83.2
노르웨이	80.8	78.4	83.2	81.8	79.8	83.8
폴란드	75.7	71.3	80.0	77.1	73.0	81.2
포르투갈	79.5	76.2	82.7	80.8	77.6	84.0
슬로바키아	75.0	70.9	79.0	76.5	72.9	80.1
슬로베니아	79.1	75.5	82.6	80.4	77.2	83.6
스페인	81.5	78.3	84.6	83.2	80.2	86.1
스웨덴	81.3	79.2	83.3	82.0	80.2	83.8
스위스	82.2	79.8	84.6	82.9	80.7	85.0
터키	73.9	71.5	76.2	76.6	73.7	79.4
영국	79.8	77.7	81.8	81.1	79.2	82.9
미국	78.1	75.6	80.6	78.8	76.4	81.2
평균a(34)	79.3	76.4	82.1	80.5	77.8	83.1
최근평균b(34)				80.5	77.8	83.1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1-1] 기대수명 (남자, 여자), 2013년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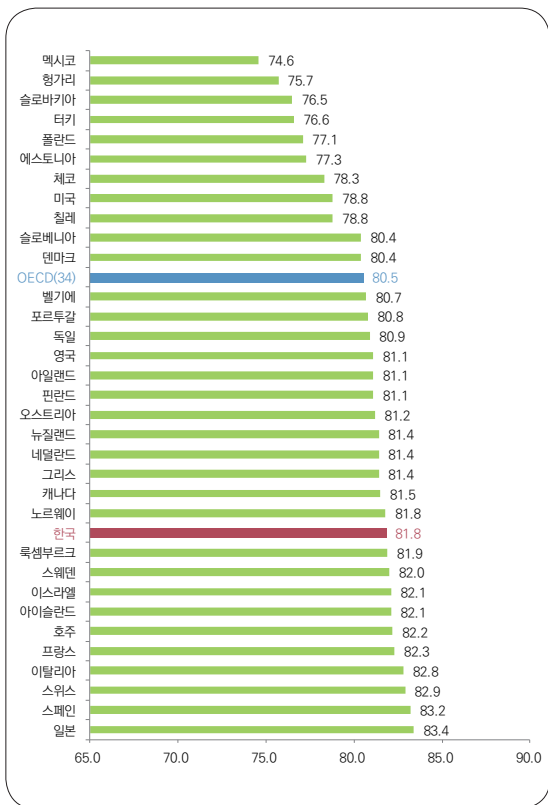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캐나다(2011)

(그림 1-2) 기대수명 (전체), 2013년

(단위: 년)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캐나다(2011)

2. 영아사망률

-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3.0명으로 OECD평균(4.1명)보다 1.1명 낮았음.
 -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지난 5년간 0.4명(2008년: 3.4명 → 2013년: 3.0명) 줄어들었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도 4.6명에서 4.1명으로 줄어들었음.
-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1.8명), 핀란드(1.8명)는 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이 2.0명 미만으로 낮았음.
 - OECD 회원국 중 11개 국가에서 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이 3.0명 미만으로 나타남.
 - 멕시코는 영아사망률이 13.0명을 기록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의 수로, 보건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임.

〈표 2〉 영아사망률

(단위: 명/출생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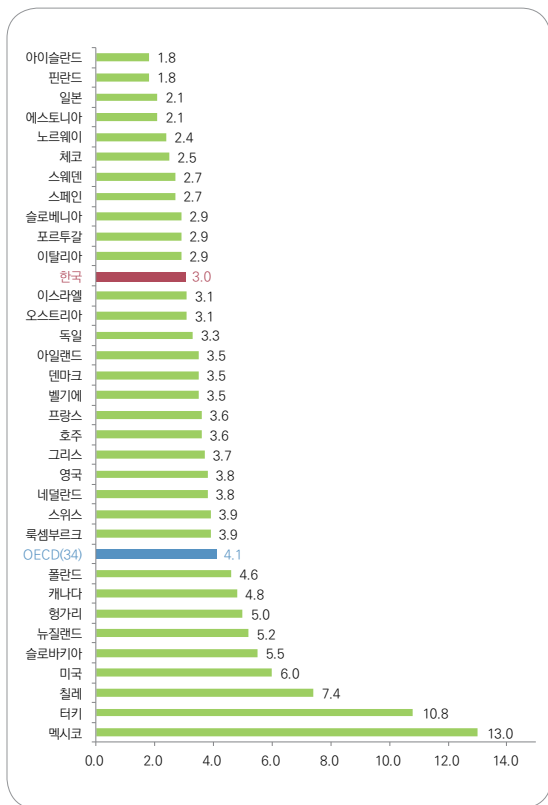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4.1	3.6
오스트리아	3.7	3.1
벨기에	3.8	3.5
캐나다	5.1	4.8 (2011)
칠레	7.8	7.4 (2012)
체코	2.8	2.5
덴마크	4.0	3.5
에스토니아	5.0	2.1
핀란드	2.6	1.8
프랑스	3.8	3.6
독일	3.5	3.3
그리스	2.7	3.7
헝가리	5.6	5.0
아이슬란드	2.5	1.8
아일랜드	3.8	3.5
이스라엘	3.8	3.1
이탈리아	3.3	2.9
일본	2.6	2.1
한국	3.4	3.0
룩셈부르크	1.8	3.9
멕시코	15.1	13.0
네덜란드	3.8	3.8
뉴질랜드	5.0	5.2 (2011)
노르웨이	2.7	2.4
폴란드	5.6	4.6
포르투갈	3.3	2.9
슬로바키아	5.9	5.5
슬로베니아	2.4	2.9
스페인	3.3	2.7
스웨덴	2.5	2.7
스위스	4.0	3.9
터키	16.1	10.8
영국	4.6	3.8
미국	6.6	6.0 (2012)
평균a(34)	4.6	4.1
최근평균b(34)		4.1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2] 영아사망률, 2013년

(단위: 명/출생아 1,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캐나다(2011), 칠레(2012), 뉴질랜드(2011), 미국(2012)

3. 암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3.3명(2012년)으로 OECD 평균(205.4명)에 비해 낮았음.
 - 우리나라의 암 사망률은 2008년 199.5명에서 2012년 183.3명으로 16.2명 줄어듦.
 - 2008과 2013년 사이 OECD 회원국 평균 암 사망률은 9.7명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감소폭 보다 적었음.

* 연령표준화 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 국가 간 또는 시계열에 의하여 생기는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 표준 인구구조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사망률

$$\text{연령표준화 사망률} = \frac{\sum(\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text{표준인구}}$$

- 우리나라 남성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88.4명(2012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271.4명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의 암 사망률은 117.7명(2012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 암 사망률 161.2명에 비해 낮았음.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의 암 사망률은 여성의 암 사망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암 사망률의 남·녀 차이가 2.5배(2012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터키(2.4배), 에스토니아(2.2배, 2012년) 순으로 높은 차이를 나타냄. 멕시코는 남·녀 차이가 1.2배로 가장 낮았음.
- OECD 회원국에서 암에 의한 사망은 전체 사망의 25% 정도를 차지하여 순환계 질환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사망원인임.

〈표 3〉 전체 암의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인구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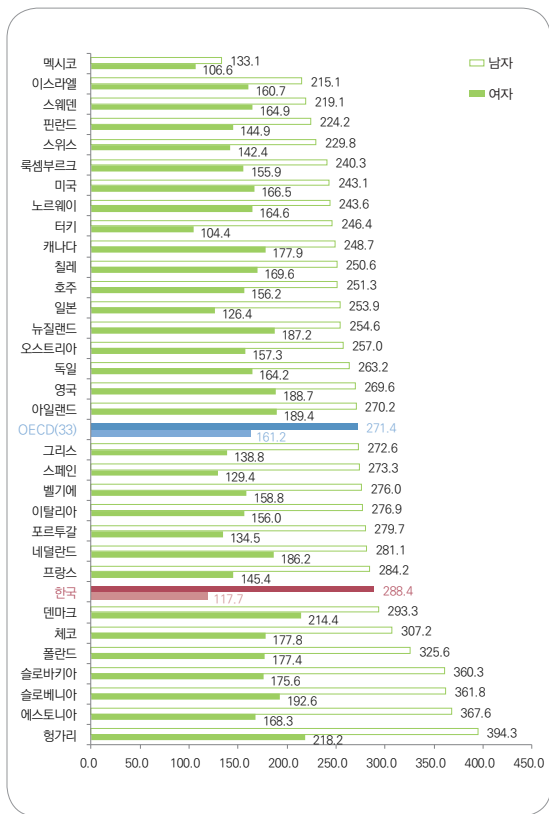
	2008			2013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207.9	266.6	163.8	197.7	251.3	156.2 [2011]
오스트리아	212.0	284.1	166.5	197.1	257.0	157.3
벨기에	222.0	300.4	168.2	207.0	276.0	158.8 [2012]
캐나다	218.7	266.5	185.5	207.5	248.7	177.9 [2011]
칠레	198.4	245.2	167.7	201.8	250.6	169.6 [2012]
체코	256.7	349.2	196.0	229.8	307.2	177.8
덴마크	256.7	304.0	226.1	246.1	293.3	214.4 [2012]
에스토니아	240.3	373.7	172.7	233.3	367.6	168.3 [2012]
핀란드	180.4	233.1	148.3	175.8	224.2	144.9
프랑스	213.6	302.9	150.7	203.5	284.2	145.4 [2011]
독일	210.5	272.4	168.5	204.8	263.2	164.2
그리스	208.8	279.0	151.7	198.2	272.6	138.8 [2012]
헝가리	294.7	413.8	217.8	286.3	394.3	218.2
아이슬란드	212.9	234.5	199.0	-	-	-
아일랜드	242.4	295.5	206.6	221.7	270.2	189.4 [2010]
이스라엘	196.3	226.6	174.5	183.8	215.1	160.7 [2012]
이탈리아	212.2	290.5	158.9	205.4	276.9	156.0 [2012]
일본	190.4	274.6	132.1	179.0	253.9	126.4
한국	199.5	319.5	126.1	183.3	288.4	117.7 [2012]
룩셈부르크	201.1	260.9	161.2	189.1	240.3	155.9
멕시코	124.5	142.3	113.0	117.1	133.1	106.6 [2012]
네덜란드	241.2	310.0	197.8	224.3	281.1	186.2
뉴질랜드	225.3	273.7	190.4	215.7	254.6	187.2 [2011]
노르웨이	213.4	271.2	177.4	196.4	243.6	164.6
폴란드	255.6	362.5	189.5	234.2	325.6	177.4
포르투갈	198.7	283.7	138.4	195.0	279.7	134.5
슬로바키아	251.5	362.9	180.8	247.2	360.3	175.6 [2010]
슬로베니아	262.0	368.2	197.6	257.3	361.8	192.6 [2010]
스페인	199.9	292.0	132.0	190.8	273.3	129.4
스웨덴	195.3	235.4	169.5	186.2	219.1	164.9
스위스	185.7	248.0	144.1	177.6	229.8	142.4 [2012]
터키	147.5	218.0	93.3 [2009]	166.1	246.4	104.4
영국	232.9	284.4	197.7	222.4	269.6	188.7
미국	203.1	249.3	170.9	197.9	243.1	166.5 [2010]
평균a(33)	215.1	286.7	167.7	205.4	271.4	161.2
최근평균b(33)				205.4	271.4	161.2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3-1]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남자, 여자), 2013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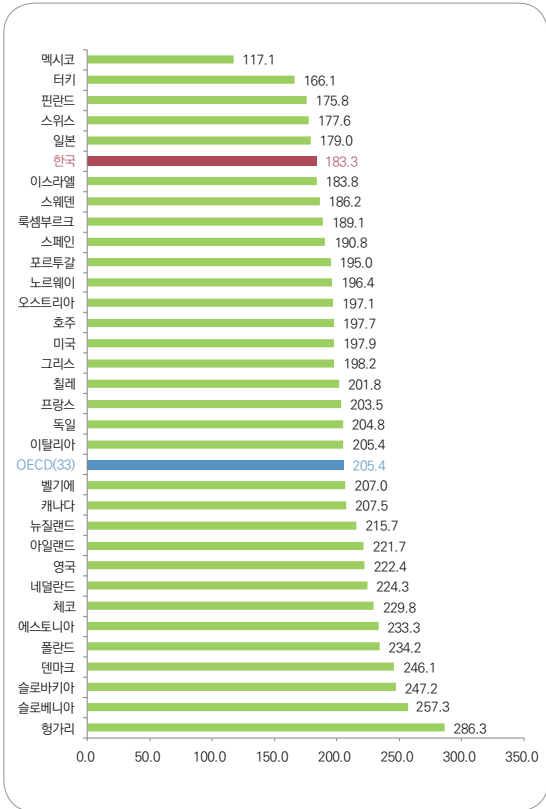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벨기에(2012), 캐나다(2011), 칠레(2012), 덴마크(2012), 에스토니아(2012), 프랑스(2011),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0), 이스라엘(2012), 이탈리아(2012), 한국(2012), 멕시코(2012), 뉴질랜드(2011), 슬로바키아(2010), 슬로베니아(2010), 스위스(2012), 미국(2010)

[그림 3-2] 암의 연령별표준화 사망률 (전체), 2013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벨기에(2012), 캐나다(2011), 칠레(2012), 덴마크(2012), 에스토니아(2012), 프랑스(2011),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0), 이스라엘(2012), 이탈리아(2012), 한국(2012), 멕시코(2012), 뉴질랜드(2011), 슬로바키아(2010), 슬로베니아(2010), 스위스(2012), 미국(2010)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76.5명(2012년)으로 OECD 평균(66.0명)에 비해 높음.
 - 우리나라의 2008년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99.6명으로, 지난 4년간 23% 정도 감소하였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OECD 회원국의 평균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17% 감소함.
-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나타냄. 스위스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7.1명(2012년)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슬로바키아(136.7명, 2010년)의 27.1% 수준에 불과했음.
 - 슬로바키아(136.7명, 2010년), 헝가리(118.4명), 그리스(105.9명, 2012년), 터키(100.8명) 등의 국가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100명 이상으로 높은 반면, 스위스(37.1명, 2012년), 캐나다(37.8명, 2011년), 프랑스(38.1명, 2011년)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40명 미만으로 낮았음.

〈표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인구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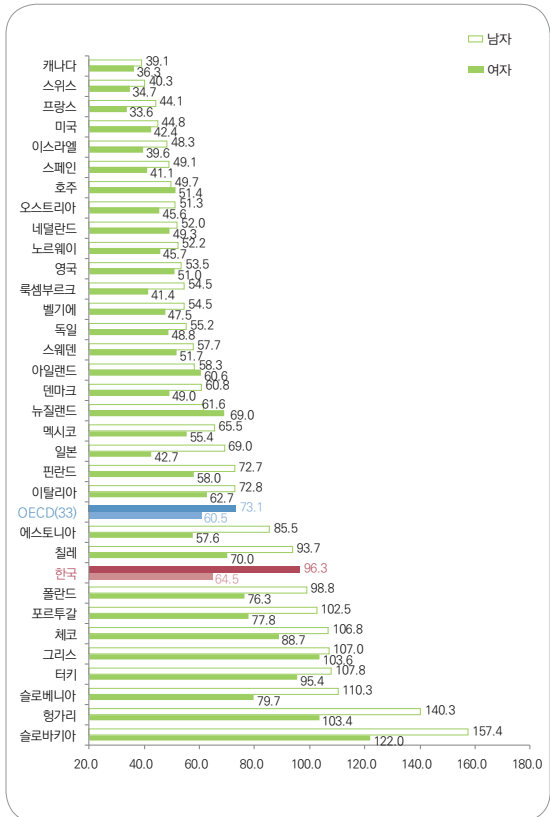
	2008			2013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60.7	60.2	60.0	51.4	49.7	51.4 [2011]
오스트리아	56.7	62.7	52.4	48.5	51.3	45.6
벨기에	60.0	66.0	55.4	50.7	54.5	47.5 [2012]
캐나다	43.3	44.8	41.4	37.8	39.1	36.3 [2011]
칠레	79.8	96.3	67.7	80.3	93.7	70.0 [2012]
체코	125.2	134.7	117.1	96.7	106.8	88.7
덴마크	67.2	73.8	62.1	54.3	60.8	49.0 [2012]
에스토니아	113.2	135.4	98.1	68.1	85.5	57.6 [2012]
핀란드	71.7	79.9	64.7	64.7	72.7	58.0
프랑스	42.4	48.5	37.7	38.1	44.1	33.6 [2011]
독일	62.0	64.5	58.5	52.1	55.2	48.8
그리스	133.5	122.6	141.5	105.9	107.0	103.6 [2012]
헝가리	136.0	164.6	117.0	118.4	140.3	103.4
아이슬란드	57.5	59.8	56.0	-	-	-
아일랜드	68.2	71.0	65.1	60.5	58.3	60.6 [2010]
이스라엘	41.8	44.8	39.3	43.6	48.3	39.6 [2012]
이탈리아	77.8	86.3	71.6	67.2	72.8	62.7 [2012]
일본	69.1	88.2	55.1	54.1	69.0	42.7
한국	99.6	125.7	84.2	76.5	96.3	64.5 [2012]
룩셈부르크	69.2	75.9	63.5	46.3	54.5	41.4
멕시코	67.6	73.0	63.4	59.8	65.5	55.4 [2012]
네덜란드	56.8	58.8	54.3	51.2	52.0	49.3
뉴질랜드	72.3	67.3	74.2	66.7	61.6	69.0 [2011]
노르웨이	66.5	72.3	61.3	49.0	52.2	45.7
폴란드	112.2	129.6	98.8	86.4	98.8	76.3
포르투갈	122.5	136.7	111.2	88.1	102.5	77.8
슬로바키아	148.4	177.5	128.5	136.7	157.4	122.0 [2010]
슬로베니아	97.8	116.9	86.1	91.6	110.3	79.7 [2010]
스페인	60.7	66.3	55.4	44.9	49.1	41.1
스웨덴	69.1	74.8	64.0	54.6	57.7	51.7
스위스	45.3	47.2	43.8	37.1	40.3	34.7 [2012]
터키	100.4	104.5	96.8 [2009]	100.8	107.8	95.4
영국	75.8	75.9	74.3	52.6	53.5	51.0
미국	47.1	47.8	45.9	43.8	44.8	42.4 [2010]
평균a(33)	79.4	87.7	73.0	66.0	73.1	60.5
최근평균b(33)				66.0	73.1	60.5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4-1]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3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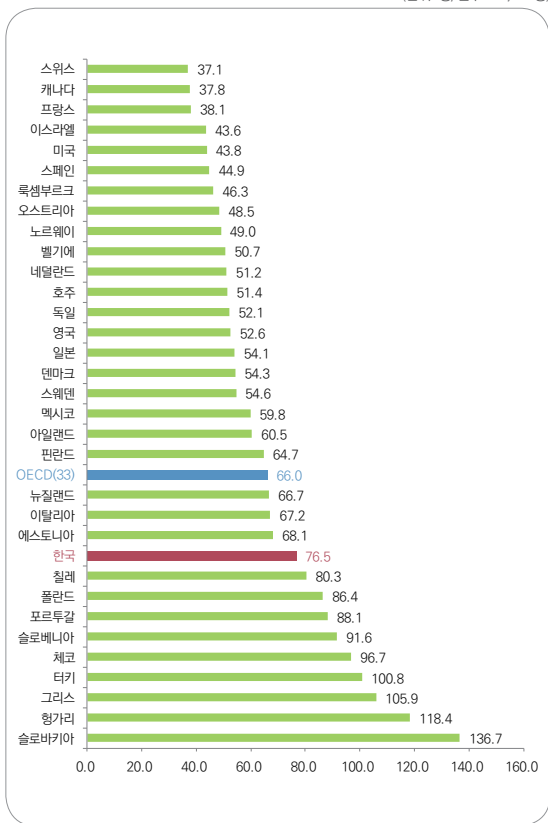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벨기에(2012), 캐나다(2011), 칠레(2012), 덴마크(2012), 에스토니아(2012), 프랑스(2011),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0), 이스라엘(2012), 이탈리아(2012), 한국(2012), 멕시코(2012), 뉴질랜드(2011), 슬로바키아(2010), 슬로베니아(2010), 스위스(2012), 미국(2010)

[그림 4-2]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3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벨기에(2012), 캐나다(2011), 칠레(2012), 덴마크(2012), 에스토니아(2012), 프랑스(2011),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0), 이스라엘(2012), 이탈리아(2012), 한국(2012), 멕시코(2012), 뉴질랜드(2011), 슬로바키아(2010), 슬로베니아(2010), 스위스(2012), 미국(2010)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2명(2012년)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한 일본(35.4명)과 프랑스(42.5명,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2008년 우리나라의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44.2명으로 4년간 1.0명 줄어듦.
 - OECD 회원국 중 슬로바키아 (404.4명, 2010년), 헝가리(297.4명)는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매우 높았음.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게 나타남.
 - OECD 회원국의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남성 평균 156.6명, 여성 평균 88.1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1.8배 높은 사망률을 기록함.

〈표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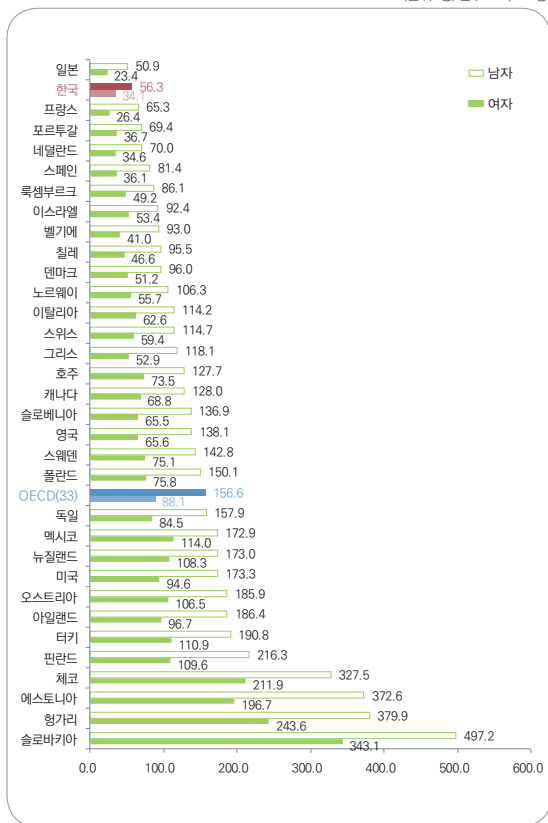
	2008			2013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20.4	153.3	93.4	98.2	127.7	73.5 [2011]
오스트리아	153.2	199.6	121.9	139.5	185.9	106.5
벨기에	79.7	115.5	54.4	62.6	93.0	41.0 [2012]
캐나다	114.7	154.5	83.2	95.2	128.0	68.8 [2011]
칠레	73.5	103.6	50.4	67.9	95.5	46.6 [2012]
체코	273.0	338.3	226.4	260.0	327.5	211.9
덴마크	95.4	128.7	70.7	70.6	96.0	51.2 [2012]
에스토니아	340.4	476.9	267.0	259.5	372.6	196.7 [2012]
핀란드	198.1	270.3	147.0	153.9	216.3	109.6
프랑스	50.4	76.3	32.4	42.5	65.3	26.4 [2011]
독일	132.0	173.7	101.1	115.2	157.9	84.5
그리스	92.4	125.6	63.2	83.3	118.1	52.9 [2012]
헝가리	321.6	409.2	262.9	297.4	379.9	243.6
아이슬란드	147.1	203.1	101.8	-	-	-
아일랜드	162.5	220.7	116.9	135.9	186.4	96.7 [2010]
이스라엘	96.5	123.9	75.6	70.3	92.4	53.4 [2012]
이탈리아	93.5	126.4	70.1	84.1	114.2	62.6 [2012]
일본	41.9	59.1	29.0	35.4	50.9	23.4
한국	44.2	57.5	35.0	43.2	56.3	34.1 [2012]
룩셈부르크	84.4	126.8	57.0	65.6	86.1	49.2
멕시코	133.9	166.5	107.5	140.4	172.9	114.0 [2012]
네덜란드	69.2	99.1	48.3	49.8	70.0	34.6
뉴질랜드	152.3	194.7	117.6	137.9	173.0	108.3 [2011]
노르웨이	106.7	148.4	76.0	78.4	106.3	55.7
폴란드	146.9	203.2	108.3	106.4	150.1	75.8
포르투갈	64.9	86.3	49.0	50.5	69.4	36.7
슬로바키아	428.4	528.6	362.1	404.4	497.2	343.1 [2010]
슬로베니아	97.2	143.0	66.6	93.9	136.9	65.5 [2010]
스페인	69.4	98.1	47.3	55.9	81.4	36.1
스웨덴	138.3	188.2	100.7	104.7	142.8	75.1
스위스	99.1	136.2	73.1	82.4	114.7	59.4 [2012]
터키	122.5	159.5	92.8 [2009]	146.1	190.8	110.9
영국	128.1	177.2	90.3	97.6	138.1	65.6
미국	142.6	188.5	107.8	128.4	173.3	94.6 [2010]
평균a(33)	135.4	180.5	103.2	116.9	156.6	88.1
최근평균b(33)				116.9	156.6	88.1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5-1] 허혈성심장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3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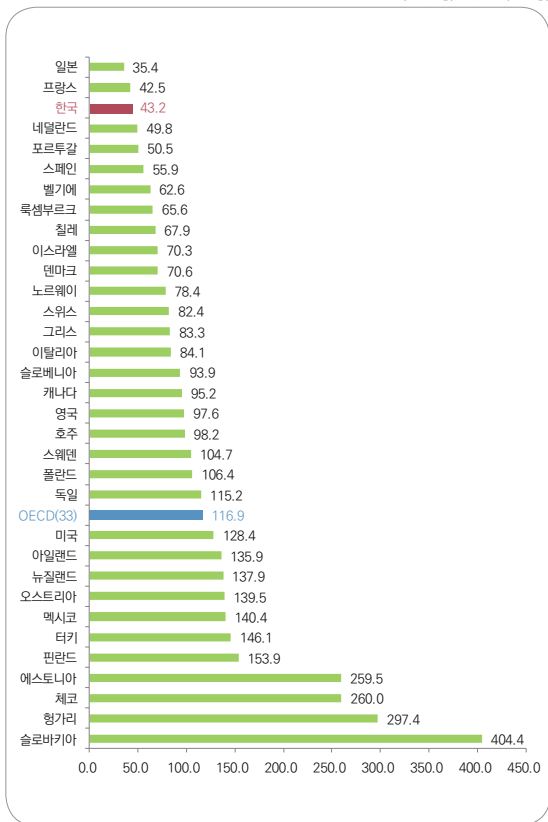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벨기에(2012), 캐나다(2011), 칠레(2012), 덴마크(2012), 에스토니아(2012), 프랑스(2011),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0), 이스라엘(2012), 이탈리아(2012), 한국(2012), 멕시코(2012), 뉴질랜드(2011), 슬로바키아(2010), 슬로베니아(2010), 스위스(2012), 미국(2010)

[그림 5-2] 허혈성심장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3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벨기에(2012), 캐나다(2011), 칠레(2012), 덴마크(2012), 에스토니아(2012), 프랑스(2011),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0), 이스라엘(2012), 이탈리아(2012), 한국(2012), 멕시코(2012), 뉴질랜드(2011), 슬로바키아(2010), 슬로베니아(2010), 스위스(2012), 미국(2010)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 우리나라의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5.3명(2012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67.3명)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2008년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64.2명으로 4년 사이 11.1명 늘어남.
 - OECD 회원국 중 핀란드(27.7명), 에스토니아(29.1명, 2012년)는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가장 낮았으며, 영국(109.0명)은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100명 이상으로 가장 높았음.
-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에 비해 높았음.
 - 우리나라 남성의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122.1명(2012년), 여성의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52.4명(2012년)으로,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에 비하여 2.3배 이상 높았음.

〈표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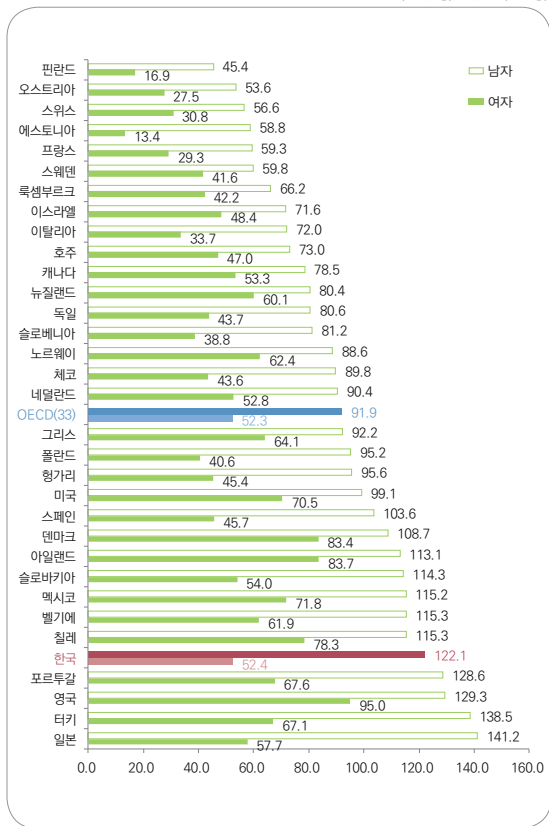
	2008			2013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57.2	73.7	46.0	57.7	73.0	47.0 [2011]
오스트리아	43.7	63.6	32.3	37.6	53.6	27.5
벨기에	91.3	132.8	66.4	82.3	115.3	61.9 [2012]
캐나다	64.9	84.7	52.4	63.4	78.5	53.3 [2011]
칠레	85.1	107.5	69.7	93.1	115.3	78.3 [2012]
체코	58.6	85.0	43.0	61.4	89.8	43.6
덴마크	96.7	119.4	83.9	92.6	108.7	83.4 [2012]
에스토니아	34.1	70.3	16.3	29.1	58.8	13.4 [2012]
핀란드	33.0	56.6	20.5	27.7	45.4	16.9
프랑스	42.9	62.8	30.8	40.9	59.3	29.3 [2011]
독일	57.6	82.2	43.0	58.0	80.6	43.7
그리스	85.8	97.6	76.2	76.1	92.2	64.1 [2012]
헝가리	59.4	93.8	39.5	63.2	95.6	45.4
아이슬란드	72.5	75.0	69.2	-	-	-
아일랜드	112.9	136.0	97.6	95.6	113.1	83.7 [2010]
이스라엘	65.5	77.6	56.2	58.3	71.6	48.4 [2012]
이탈리아	46.3	72.3	31.4	47.9	72.0	33.7 [2012]
일본	93.5	149.5	62.1	88.7	141.2	57.7
한국	64.2	106.2	43.5	75.3	122.1	52.4 [2012]
룩셈부르크	62.7	86.8	50.6	52.3	66.2	42.2
멕시코	99.1	127.2	79.1	89.9	115.2	71.8 [2012]
네덜란드	85.3	121.4	65.8	66.6	90.4	52.8
뉴질랜드	72.0	87.2	62.9	68.2	80.4	60.1 [2011]
노르웨이	78.2	105.8	62.5	72.3	88.6	62.4
폴란드	58.2	95.6	37.3	60.4	95.2	40.6
포르투갈	98.2	138.5	73.3	90.7	128.6	67.6
슬로바키아	71.2	107.3	50.1	75.8	114.3	54.0 [2010]
슬로베니아	58.5	92.0	42.9	52.9	81.2	38.8 [2010]
스페인	84.2	127.6	56.2	68.5	103.6	45.7
스웨덴	49.1	62.4	40.8	48.6	59.8	41.6
스위스	40.9	58.5	30.2	40.5	56.6	30.8 [2012]
터키	79.3	117.2	53.2	96.0	138.5	67.1
영국	116.4	137.7	102.5	109.0	129.3	95.0
미국	87.6	105.5	76.1	81.7	99.1	70.5 [2010]
평균a(33)	70.7	98.3	54.4	67.3	91.9	52.3
최근평균b(33)				67.3	91.9	52.3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6-1] 호흡기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남자, 여자), 2013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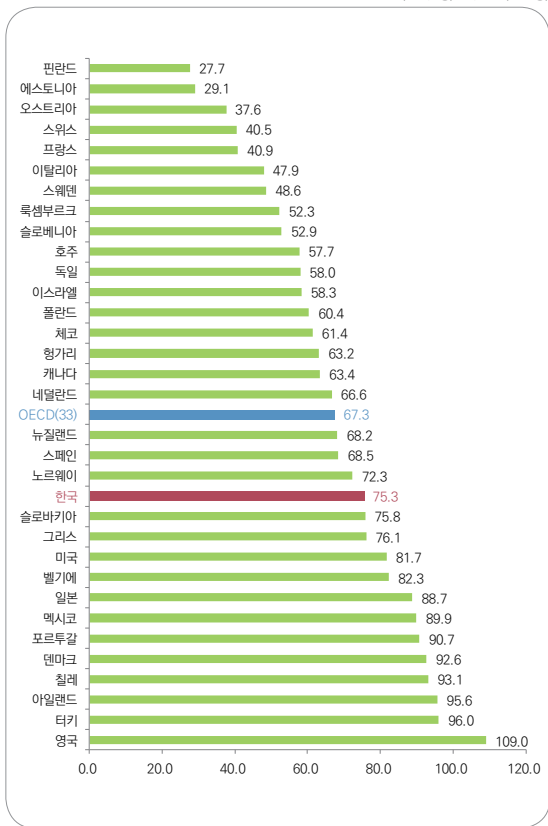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벨기에(2012), 캐나다(2011), 칠레(2012), 덴마크(2012), 에스토니아(2012), 프랑스(2011),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0), 이스라엘(2012), 이탈리아(2012), 한국(2012), 멕시코(2012), 뉴질랜드(2011), 슬로바키아(2010), 슬로베니아(2010), 스위스(2012), 미국(2010)

[그림 6-2] 호흡기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전체), 2013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벨기에(2012), 캐나다(2011), 칠레(2012), 덴마크(2012), 에스토니아(2012), 프랑스(2011),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0), 이스라엘(2012), 이탈리아(2012), 한국(2012), 멕시코(2012), 뉴질랜드(2011), 슬로바키아(2010), 슬로베니아(2010), 스위스(2012), 미국(2010)

7. 자살에 의한 사망률(자살률)

-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 (2012년) 으로 OECD 평균(12.0명)에 비해 17.1명 높음.
 -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임. 그러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임.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28.1	29.5	29.9	26.2	28.7	29.0	33.8	33.5	33.3	29.1
남성	44.0	45.0	45.1	39.9	41.9	41.9	48.3	49.6	50.0	43.2
여성	16.5	17.7	18.6	15.9	19.3	19.4	22.8	21.4	20.2	17.8

-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남성 19.2명, 여성 5.5명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에 비해 높음.
 -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은 2008년 12.3명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음.
-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6명)와 그리스(4.2명, 2012년)이며, 헝가리(19.4명)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함.

〈표 7〉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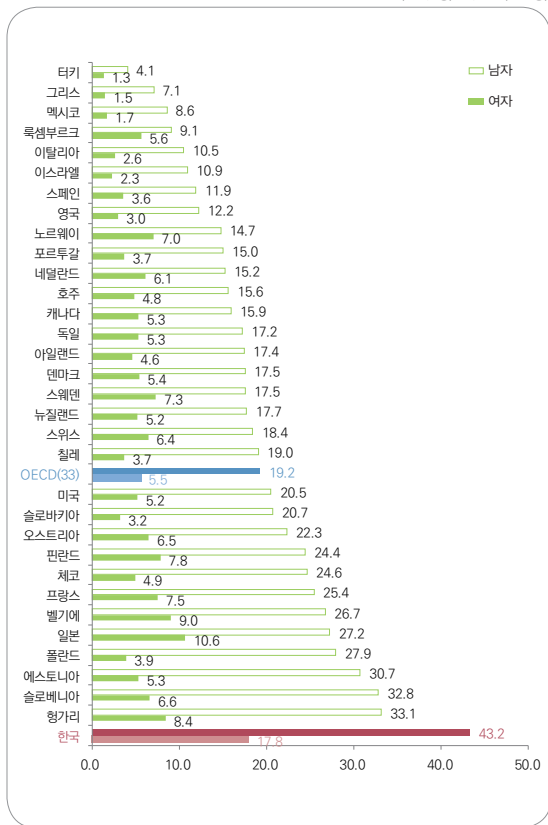
	2008			2013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0.9	17.4	4.7	10.1	15.6	4.8 [2011]
오스트리아	14.1	23.7	6.3	13.6	22.3	6.5
벨기에	17.9	27.3	9.5	17.4	26.7	9.0 [2012]
캐나다	10.7	16.4	5.3	10.5	15.9	5.3 [2011]
칠레	13.1	21.9	4.9	11.0	19.0	3.7 [2012]
체코	12.6	22.2	4.4	14.2	24.6	4.9
덴마크	10.7	15.6	6.3	11.3	17.5	5.4 [2012]
에스토니아	17.3	31.1	6.7	16.6	30.7	5.3 [2012]
핀란드	19.0	30.2	8.4	15.8	24.4	7.8
프랑스	16.1	25.6	8.0	15.8	25.4	7.5 [2011]
독일	10.3	16.5	4.9	10.8	17.2	5.3
그리스	3.1	5.2	1.0	4.2	7.1	1.5 [2012]
헝가리	23.4	41.3	9.5	19.4	33.1	8.4
아이슬란드	12.4	16.9	7.7	-	-	-
아일랜드	11.5	17.3	5.6	11.0	17.4	4.6 [2010]
이스라엘	5.7	10.0	1.8	6.4	10.9	2.3 [2012]
이탈리아	5.8	9.6	2.6	6.3	10.5	2.6 [2012]
일본	21.8	32.4	11.9	18.7	27.2	10.6
한국	29.0	41.9	19.4	29.1	43.2	17.8 [2012]
룩셈부르크	8.4	14.7	3.1	7.3	9.1	5.6
멕시코	4.7	8.3	1.5	5.0	8.6	1.7 [2012]
네덜란드	8.4	12.1	5.1	10.5	15.2	6.1
뉴질랜드	12.3	18.8	6.4	11.3	17.7	5.2 [2011]
노르웨이	10.6	14.8	6.6	10.8	14.7	7.0
폴란드	14.4	26.2	3.9	15.3	27.9	3.9
포르투갈	9.0	15.4	3.8	8.7	15.0	3.7
슬로바키아	10.7	19.7	2.9	11.3	20.7	3.2 [2010]
슬로베니아	18.6	32.0	7.3	18.6	32.8	6.6 [2010]
스페인	7.0	11.5	3.1	7.5	11.9	3.6
스웨덴	12.2	18.2	6.6	12.3	17.5	7.3
스위스	16.0	22.7	10.3	12.0	18.4	6.4 [2012]
터키	2.0	3.5	0.9 [2009]	2.6	4.1	1.3
영국	6.9	10.9	3.0	7.6	12.2	3.0
미국	12.0	19.8	4.9	12.5	20.5	5.2 [2010]
평균a(33)	12.3	19.8	5.8	12.0	19.2	5.5
최근평균b(33)				12.0	19.2	5.5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7-1]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남자, 여자), 2013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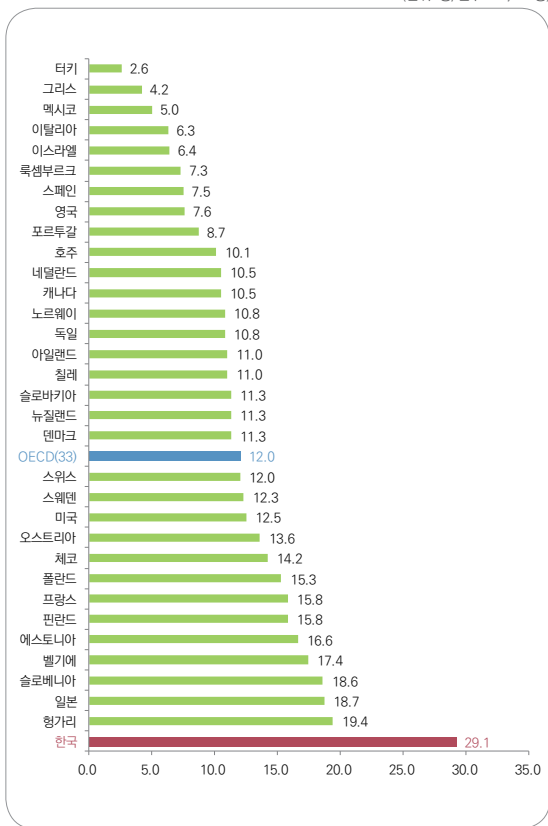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벨기에(2012), 캐나다(2011), 칠레(2012), 덴마크(2012), 에스토니아(2012), 프랑스(2011),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0), 이스라엘(2012), 이탈리아(2012), 한국(2012), 멕시코(2012), 뉴질랜드(2011), 슬로바키아(2010), 슬로베니아(2010), 스위스(2012), 미국(2010)

[그림 7-2]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전체), 2013년

(단위: 명/인구 100,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벨기에(2012), 캐나다(2011), 칠레(2012), 덴마크(2012), 에스토니아(2012), 프랑스(2011), 그리스(2012), 아일랜드(2010), 이스라엘(2012), 이탈리아(2012), 한국(2012), 멕시코(2012), 뉴질랜드(2011), 슬로바키아(2010), 슬로베니아(2010), 스위스(2012), 미국(2010)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좋음, 매우 좋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5.1%로 OECD 평균 69.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평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71.7%, 여자 66.9%인 반면, 우리나라는 남자 38.8%, 여자 31.5%로 남·녀 모두 매우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한국(35.1%)과 일본(35.4%)은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 낮으며, 뉴질랜드(89.6%), 캐나다(88.7%), 미국(87.5%), 호주(85.4%, 2011년)에서 높음.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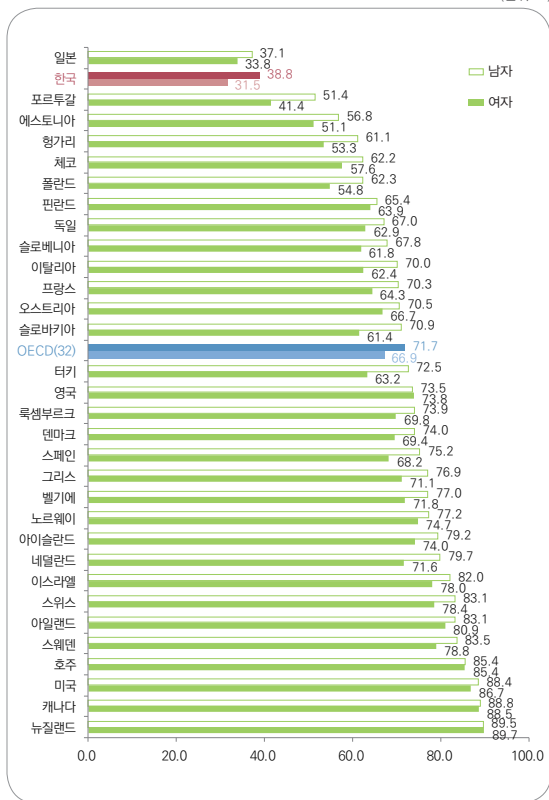
(단위: %)

	2008				2013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84.9	84.4	85.3	[2007]	85.4	85.4	85.4	[2011]
오스트리아	70.0	71.6	68.6		68.6	70.5	66.7	
벨기에	73.9	76.6	71.3		74.3	77.0	71.8	
캐나다	88.1	88.4	87.8		88.7	88.8	88.5	
칠레	59.1	67.3	51.4	[2009]	-	-	-	
체코	61.4	65.2	58.2		59.6	62.2	57.6	
덴마크	74.2	75.8	72.6		71.7	74.0	69.4	
에스토니아	54.5	56.9	52.7		53.4	56.8	51.1	
핀란드	68.6	69.7	67.5		64.6	65.4	63.9	
프랑스	69.1	71.7	66.7		67.2	70.3	64.3	
독일	64.5	66.8	62.3		64.9	67.0	62.9	
그리스	76.0	79.1	73.1		73.9	76.9	71.1	
헝가리	55.1	58.7	51.9		56.9	61.1	53.3	
아이슬란드	80.5	82.4	78.5		76.6	79.2	74.0	
아일랜드	84.3	85.6	83.0		82.0	83.1	80.9	
이스라엘	79.7	82.6	76.9		80.0	82.0	78.0	
이탈리아	63.5	67.8	59.5		66.1	70.0	62.4	
일본	32.7	34.7	30.9	[2007]	35.4	37.1	33.8	
한국	43.7	48.0	39.5		35.1	38.8	31.5	
룩셈부르크	74.0	75.5	72.6		71.9	73.9	69.8	
멕시코	65.5	66.9	64.2	[2006]	-	-	-	
네덜란드	77.3	81.1	73.9		75.6	79.7	71.6	
뉴질랜드	89.7	89.6	89.8	[2007]	89.6	89.5	89.7	
노르웨이	76.6	79.2	74.0		76.0	77.2	74.7	
폴란드	57.7	61.2	54.4		58.3	62.3	54.8	
포르투갈	48.3	54.0	43.1		46.1	51.4	41.4	
슬로바키아	59.6	64.9	55.0		65.9	70.9	61.4	
슬로베니아	58.8	61.0	56.7		64.8	67.8	61.8	
스페인	72.4	76.3	68.7		71.6	75.2	68.2	
스웨덴	78.4	81.5	75.5		81.1	83.5	78.8	
스위스	81.3	83.3	79.3		80.7	83.1	78.4	
터키	68.0	72.4	63.6		67.8	72.5	63.2	
영국	79.2	79.9	78.6		73.7	73.5	73.8	
미국	87.8	88.7	87.0		87.5	88.4	86.7	
평균a(32)	69.8	72.3	67.5		69.2	71.7	66.9	
최근평균b(32)					69.2	71.7	66.9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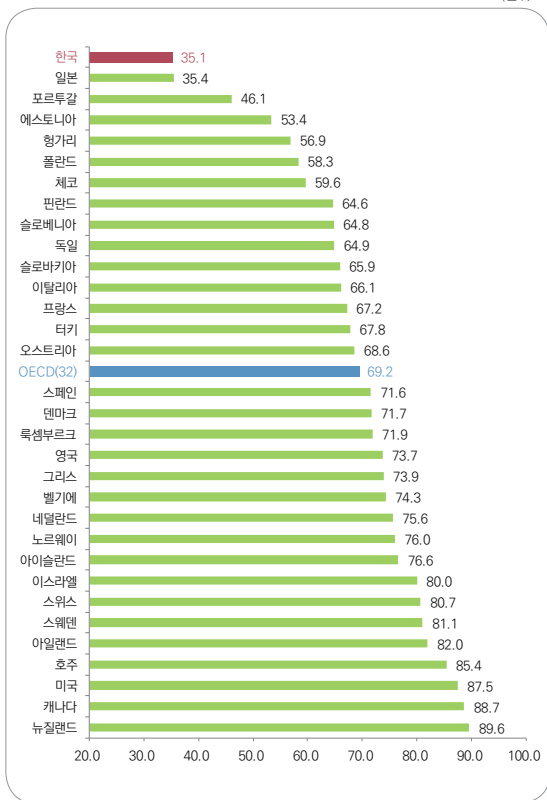
[그림 8-1]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남자, 여자) 2013년
(단위: %)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그림 8-2]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전체) 2013년

(단위: %)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OECD Health Data



2015



제 Ⅱ 장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 9. 주류 소비량
- 10. 흡연인구 비율
-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Ⅱ.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9. 주류 소비량

-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8.7리터로 OECD 평균(8.9리터)과 비슷한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12.2리터, 2011년), 에스토니아(11.8리터)는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터키(1.4리터), 이스라엘(2.6리터, 2011년)은 5리터 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2008년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량은 9.5리터로, 5년간 0.8리터가 줄었음.
 - OECD 회원국 평균 주류 소비량은 2008년 9.5리터에서 2013년 8.9리터로 줄었음.

〈표 9〉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단위: 순수알코올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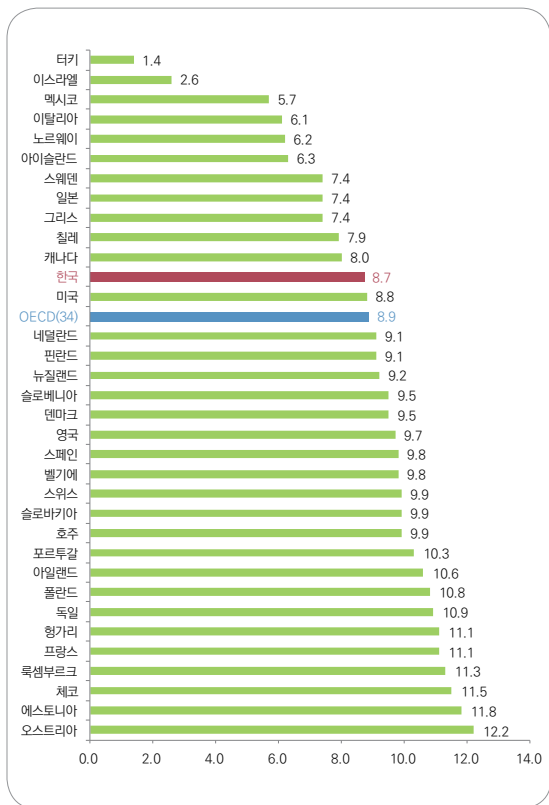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10.6	9.9 [2012]
오스트리아	12.4	12.2 [2011]
벨기에	10.6	9.8 [2012]
캐나다	8.2	8.0
칠레	7.3	7.9 [2010]
체코	12.1	11.5
덴마크	10.9	9.5
에스토니아	14.2	11.8
핀란드	10.3	9.1
프랑스	12.2	11.1
독일	11.4	10.9
그리스	8.8	7.4 [2011]
헝가리	11.8	11.1 [2012]
아이슬란드	7.3	6.3 [2010]
아일랜드	12.2	10.6
이스라엘	2.4	2.6 [2011]
이탈리아	6.8	6.1 [2010]
일본	7.5	7.4
한국	9.5	8.7
룩셈부르크	11.5	11.3 [2012]
멕시코	5.5	5.7 [2012]
네덜란드	9.7	9.1 [2012]
뉴질랜드	9.5	9.2
노르웨이	6.8	6.2
폴란드	10.8	10.8
포르투갈	11.2	10.3 [2011]
슬로바키아	11.2	9.9
슬로베니아	11.0	9.5
스페인	10.2	9.8 [2010]
스웨덴	7.0	7.4
스위스	10.2	9.9
터키	1.5	1.4
영국	10.7	9.7 [2012]
미국	8.7	8.8 [2012]
평균a(34)	9.5	8.9
최근평균b(34)		8.9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9]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2013년)

(단위: 순수알코올 ℓ)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2), 오스트리아(2011), 벨기에(2012), 칠레(2010), 그리스(2011), 헝가리(2012), 아이슬란드(2010), 이스라엘(2011), 이탈리아(2010), 룩셈부르크(2012), 멕시코(2012), 네덜란드(2012), 포르투갈(2011), 스페인(2010), 영국(2012), 미국(2012)

10. 흡연인구 비율(흡연율)

-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연율은 19.9%로 OECD 평균(18.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여성 흡연율(4.3%)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36.2%)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43.7%, 2010년), 터키(37.3%,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그리스(38.9%, 2010년)가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였으며, 스웨덴(10.7%)은 흡연율이 가장 낮았음.
 - 2008년과 2013년 사이 체코와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흡연율이 줄어들었음.

〈표 10〉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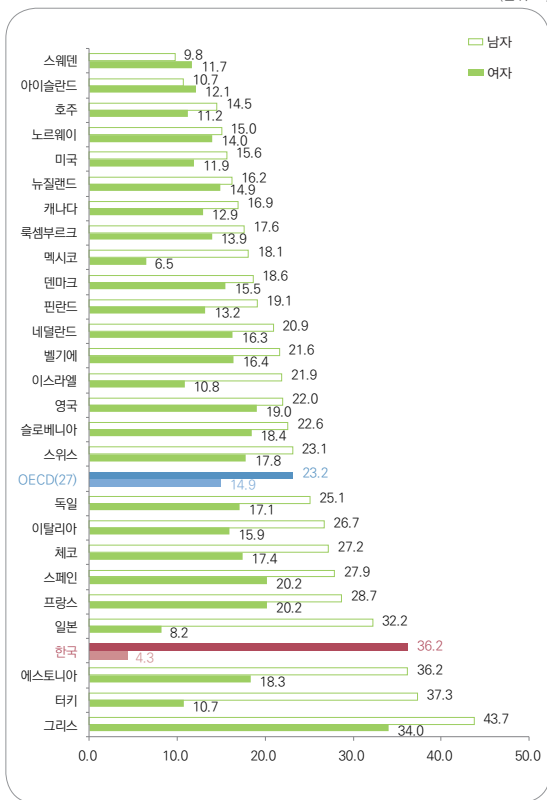
(단위: %)

	2008				2013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6.6	18.0	15.2	[2007]	12.8	14.5	11.2	
오스트리아	23.2	27.3	19.4	[2006]	-	-	-	
벨기에	20.5	23.6	17.7		18.9	21.6	16.4	
캐나다	17.5	20.0	15.1		14.9	16.9	12.9	
칠레	29.8	33.7	26.0	[2009]	-	-	-	
체코	21.8	24.9	18.8		22.2	27.2	17.4	
덴마크	23.0	24.0	22.0		17.0	18.6	15.5	
에스토니아	26.2	38.6	17.1		26.0	36.2	18.3	[2012]
핀란드	20.4	24.0	17.6		15.8	19.1	13.2	
프랑스	26.2	30.6	22.3		24.1	28.7	20.2	[2012]
독일	21.9	26.4	17.6	[2009]	20.9	25.1	17.1	
그리스	39.7	46.3	33.5		38.9	43.7	34.0	[2010]
헝가리	26.5	31.9	21.7	[2009]	-	-	-	
아이슬란드	17.6	20.1	15.0		11.4	10.7	12.1	
아일랜드	24.0	25.0	22.0	[2007]	-	-	-	
이스라엘	18.7	26.7	11.1		16.2	21.9	10.8	
이탈리아	22.4	28.9	16.4		21.1	26.7	15.9	
일본	21.8	36.8	9.1		19.3	32.2	8.2	
한국	26.3	45.3	7.4		19.9	36.2	4.3	
룩셈부르크	20.0	23.0	18.0		15.7	17.6	13.9	
멕시코	13.3	21.6	6.5	[2006]	11.8	18.1	6.5	[2012]
네덜란드	23.3	25.9	20.8		18.5	20.9	16.3	
뉴질랜드	18.1	19.3	17.0	[2007]	15.5	16.2	14.9	
노르웨이	21.0	21.0	22.0		15.0	15.0	14.0	
폴란드	23.8	30.9	17.9	[2009]	-	-	-	
포르투갈	18.6	27.2	11.0	[2006]	-	-	-	
슬로바키아	19.5	27.1	12.5	[2009]	-	-	-	
슬로베니아	18.9	22.4	15.5	[2007]	20.5	22.6	18.4	[2012]
스페인	26.2	31.2	21.3	[2009]	23.9	27.9	20.2	[2011]
스웨덴	14.6	16.3	12.9		10.7	9.8	11.7	
스위스	20.4	23.4	17.6	[2007]	20.4	23.1	17.8	[2012]
터키	27.4	43.8	11.6		23.8	37.3	10.7	[2012]
영국	21.0	22.0	21.0		20.0	22.0	19.0	[2012]
미국	16.5	17.9	15.1		13.7	15.6	11.9	
평균a(27)	21.5	26.7	16.9		18.8	23.2	14.9	
최근평균b(27)					18.8	23.2	14.9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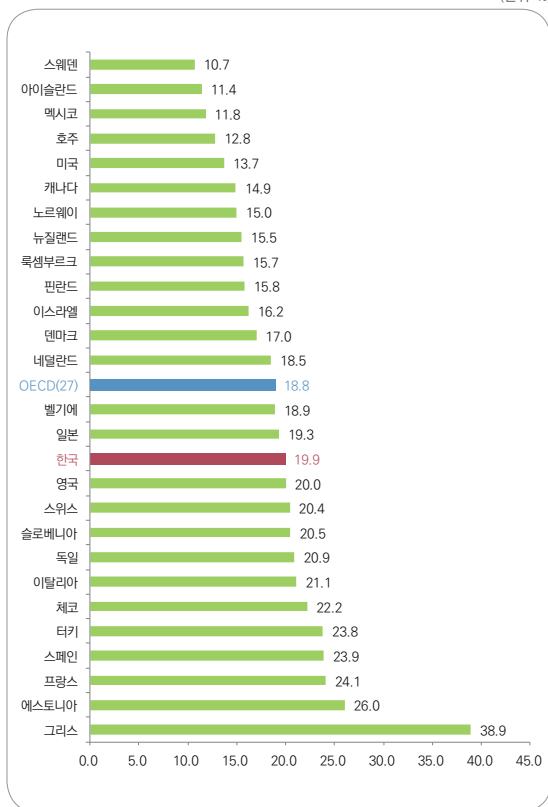
(그림 10-1)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남자, 여자), 2013년
(단위: %)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에스토니아(2012), 프랑스(2012), 그리스(2010), 멕시코(2012), 슬로베니아(2012), 스페인(2011), 스위스(2012), 터키(2012), 영국(2012)

[그림 10-2]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전체), 2013년
(단위: %)



주) 1.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에스토니아(2012), 프랑스(2012), 그리스(2010), 멕시코(2012), 슬로베니아(2012), 스페인(2011), 스위스(2012), 터키(2012), 영국(2012)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 우리나라의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31.5%로 자료를 제출한 12개 OECD 회원국 중 일본(24.1%)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56.2%)에 비해 매우 낮음.
 - OECD 회원국 중 멕시코는 비만 및 과체중 인구의 비율이 71.3%(2012년)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은 68.6%(2012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남성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높았으나, 멕시코와 터키에서는 여성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더 높았음.

〈표 11〉 측정된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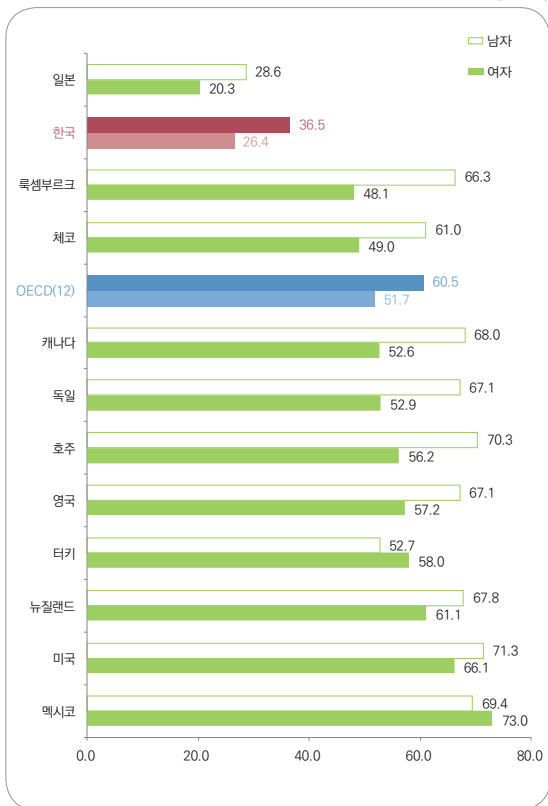
	2008				2013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61.2	67.7	54.7	[2007]	63.4	70.3	56.2	[2011]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	-	-	
캐나다	60.0	66.1	54.1		60.3	68.0	52.6	
칠레	64.5	64.6	64.3	[2009]	-	-	-	
체코	56.0	64.0	49.0		55.0	61.0	49.0	[2010]
덴마크	-	-	-		-	-	-	
에스토니아	-	-	-		-	-	-	
핀란드	59.2	65.9	52.4	[2007]	-	-	-	
프랑스	-	-	-		-	-	-	
독일	-	-	-		60.0	67.1	52.9	[2012]
그리스	-	-	-		-	-	-	
헝가리	61.6	62.7	60.7	[2009]	-	-	-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61.0	67.0	56.0	[2007]	-	-	-	
이스라엘	-	-	-		-	-	-	
이탈리아	-	-	-		-	-	-	
일본	24.2	28.6	20.6		24.1	28.6	20.3	
한국	30.1	34.8	25.2		31.5	36.5	26.4	
룩셈부르크	54.7	62.4	44.4		58.1	66.3	48.1	
멕시코	65.1	-	-		71.3	69.4	73.0	[2012]
네덜란드	-	-	-		-	-	-	
뉴질랜드	64.7	69.1	60.6	[2009]	64.4	67.8	61.1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51.5	57.8	47.7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터키	-	-	-		55.4	52.7	58.0	[2011]
영국	61.4	65.9	56.9		62.1	67.1	57.2	
미국	67.9	71.9	64.1		68.6	71.3	66.1	[2012]
평균a(9)	53.4	58.9	47.7		54.2	59.7	48.6	
최근평균b(12)					56.2	60.5	51.7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11-1) 측정된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남자, 여자), 201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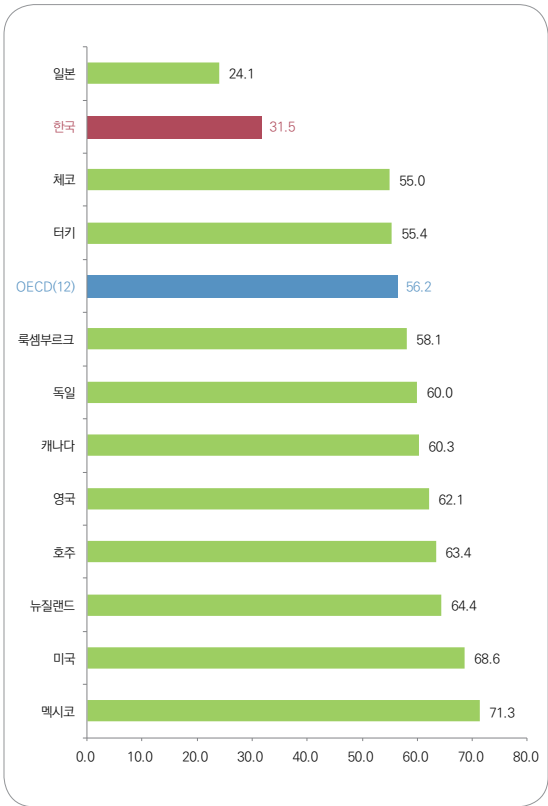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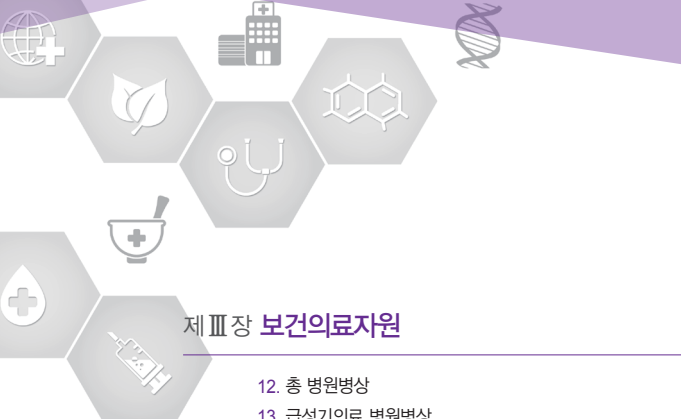
2. 호주(2011), 체코(2010), 독일(2012), 멕시코(2012), 터키(2011), 미국(2012)

[그림 11-2] 측정된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전체), 2013년

(단위: %)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1), 체코(2010), 독일(2012), 멕시코(2012), 터키(2011), 미국(2012)



제Ⅲ장 보건의료자원

- 12. 총 병원병상
-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
- 14. 임상 의사
- 15. 임상 간호사
- 16. CT 스캐너
- 17. MRI 장비
- 18. 의학계열 졸업자

Ⅲ. 보건의료자원



12. 총 병원병상

- 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1.0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보다 2.3배 많음.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병상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당 총 병원병상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3병상)이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총 병원병상수가 많았음.
 - 멕시코(1.6병상), 칠레(2.2병상)는 OECD 회원국 중 매우 적은 병원병상수를 기록함.

〈표 12〉 병원 총병상수

(단위: 병상수/인구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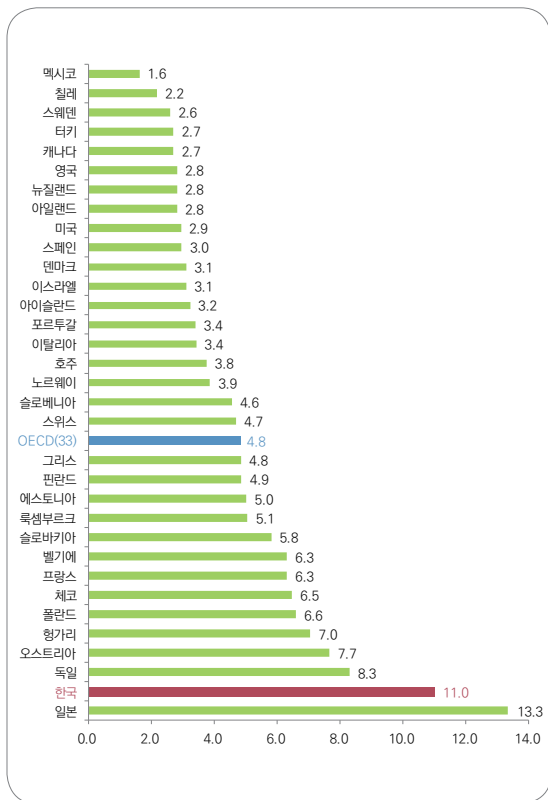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3.8	3.8 [2012]
오스트리아	7.7	7.7
벨기에	6.6	6.3
캐나다	2.8	2.7 [2012]
칠레	2.3	2.2
체코	7.2	6.5
덴마크	3.6	3.1
에스토니아	5.6	5.0
핀란드	6.6	4.9
프랑스	6.9	6.3
독일	8.2	8.3
그리스	4.8	4.8 [2011]
헝가리	7.1	7.0
아이슬란드	4.0	3.2
아일랜드	4.9	2.8
이스라엘	3.3	3.1
이탈리아	3.8	3.4 [2012]
일본	13.8	13.3
한국	7.7	11.0
룩셈부르크	5.6	5.1
멕시코	1.6	1.6
네덜란드	4.7	-
뉴질랜드	2.4 [2009]	2.8
노르웨이	4.6	3.9
폴란드	6.6	6.6
포르투갈	3.4	3.4
슬로바키아	6.6	5.8
슬로베니아	4.7	4.6
스페인	3.2	3.0
스웨덴	2.8	2.6
스위스	5.2	4.7
터키	2.4	2.7
영국	3.3	2.8
미국	3.1	2.9 [2012]
평균a(33)	5.0	4.8
최근평균b(33)		4.8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12] 병원 총병상수, 2013년

(단위: 병상수/인구 1,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2), 캐나다(2012), 그리스(2011), 이탈리아(2012), 미국(2012)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

-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급성기의료 병원병상수는 6.2병상으로 OECD 회원국 평균(3.3병상)에 비해 매우 높았음.
 -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급성기의료 병원병상을 보유한 국가는 일본(7.9병상)이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 멕시코(1.6병상), 캐나다(1.7병상, 2012년), 이스라엘(1.9병상), 칠레(1.9병상), 스웨덴(1.9병상)은 인구 1,000명당 급성기의료 병원병상수가 2.0병상 미만으로 낮았음.
- 2008년과 2013년 사이 OECD 회원국 중 급성기의료 병원병상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5.3병상 → 6.2병상), 그리스(4.0병상 → 4.1병상), 네덜란드(3.1병상 → 3.3병상), 뉴질랜드(2.3병상 → 2.6병상), 터키(2.3병상 → 2.6병상)뿐이었음.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급성기의료 병원병상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는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표 13〉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

(단위: 병상수/인구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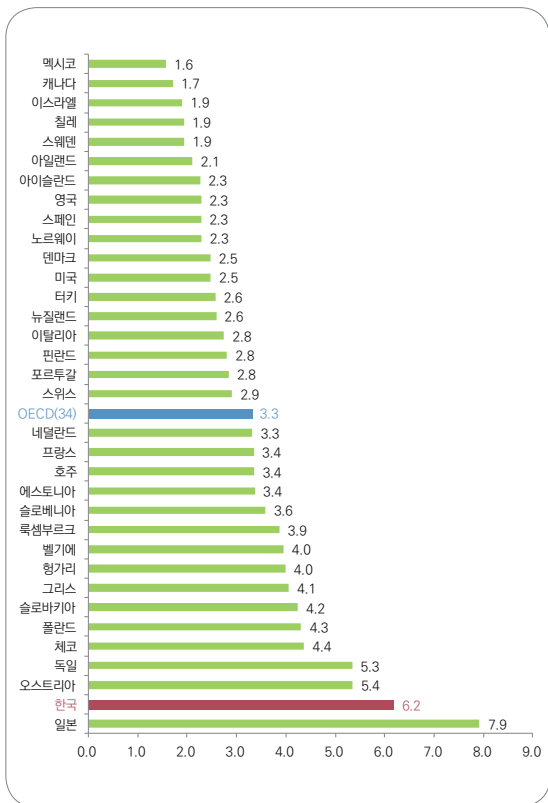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3.4	3.4 [2012]
오스트리아	5.8	5.4
벨기에	4.2	4.0
캐나다	1.8	1.7 [2012]
칠레	1.9	1.9
체코	5.1	4.4
덴마크	2.9	2.5
에스토니아	3.8	3.4
핀란드	3.1	2.8
프랑스	3.5	3.4
독일	5.4	5.3
그리스	4.0	4.1 [2011]
헝가리	4.1	4.0
아이슬란드	2.6	2.3
아일랜드	2.5	2.1
이스라엘	2.0	1.9
이탈리아	3.1	2.8 [2012]
일본	8.2	7.9
한국	5.3	6.2
룩셈부르크	4.3	3.9
멕시코	1.6	1.6
네덜란드	3.1	3.3 [2012]
뉴질랜드	2.3 [2009]	2.6
노르웨이	2.7	2.3
폴란드	4.4	4.3
포르투갈	2.8	2.8
슬로바키아	4.9	4.2
슬로베니아	3.8	3.6
스페인	2.5	2.3
스웨덴	2.1	1.9
스위스	3.3	2.9
터키	2.3	2.6
영국	2.7	2.3
미국	2.6	2.5 [2012]
평균a(33)	3.5	3.3
최근평균b(34)		3.3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13] 병원 급성기의료병상수, 2013년

(단위: 병상수/인구1,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2), 캐나다(2012), 그리스(2011), 이탈리아(2012), 네덜란드(2012), 미국(2012)

14. 임상 의사*

-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OECD 평균(3.2명)보다 1.0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임상 의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0명을 기록하였으며,
 - 우리나라는 멕시코(2.2명), 폴란드(2.2명), 일본(2.3명, 2012년)과 함께 임상 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 미만으로 낮음.
- 2008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1.9명이었으며, 5년간 0.3명이 증가하였음.
 - 2008년과 2013년 사이 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수는 0.2명 증가하였으며, 독일은 0.5명(2008년 3.6명 → 2013년 4.1명)이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임상 의사는 한의사를 포함함.

〈표 14〉 임상 의사수

(단위: 명/인구1,000명)

	2008	2013
호주	3.0	3.4
오스트리아	4.6	5.0
벨기에	2.9	3.0
캐나다	-	2.5 [2012]
칠레	-	-
체코	3.6	3.7
덴마크	3.5	3.6 [2012]
에스토니아	3.3	3.3
핀란드	2.7	3.0
프랑스	-	3.1
독일	3.6	4.1
그리스	-	-
헝가리	3.1	3.2
아이슬란드	3.7	3.6
아일랜드	-	2.7
이스라엘	3.4	3.4
이탈리아	3.7 [2009]	3.9
일본	2.2	2.3 [2012]
한국	1.9	2.2
룩셈부르크	2.7	2.8
멕시코	1.9	2.2
네덜란드	-	-
뉴질랜드	2.5	2.8
노르웨이	4.0	4.3
폴란드	2.2	2.2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3.0 [2007]	-
슬로베니아	2.4	2.6
스페인	3.5	3.8
스웨덴	3.8	4.0 [2012]
스위스	3.8	4.0
터키	-	-
영국	2.6	2.8
미국	2.4	2.6
평균a(25)	3.1	3.3
최근평균b(28)		3.2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I. 건강상태

II. 보건의료로 결핍인

III. 보건의료자인

IV. 보건의료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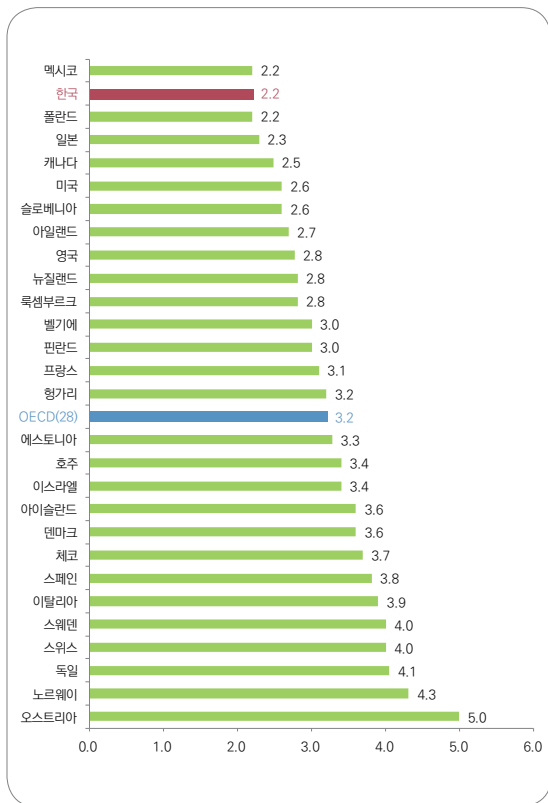
V. 보건의료비용

VI.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VII. 장기요양

[그림 14] 임상 의사수, 2013년

(단위: 명/인구1,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캐나다(2012), 덴마크(2012), 일본(2012), 스웨덴(2012)

15. 임상간호사*

-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당 5.2명으로 OECD 평균 (9.8명)의 절반 수준임.
 - 2008년 우리나라의 임상간호사 수는 4.3명으로 5년 사이 20.9% 증가하여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OECD회원국 중 스위스(17.4명), 노르웨이(16.7명), 덴마크(16.3명, 2012년), 아이슬란드(15.5명)는 인구 1,000명당 15명 이상의 많은 간호 인력을 확보함.
 - 멕시코(2.6명), 이스라엘(4.9명)은 5명 미만의 적은 간호 인력수를 기록함.

* 임상간호사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함.

〈표 15〉 임상간호사

(단위: 명/인구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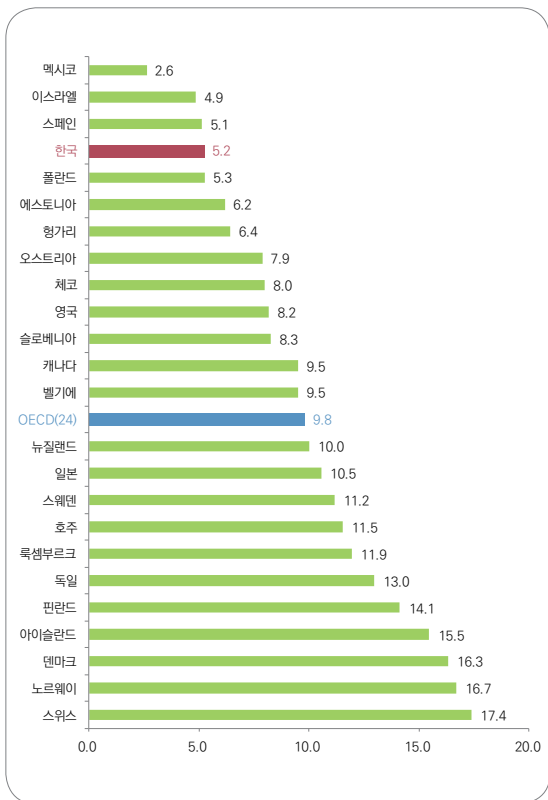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10.3	11.5
오스트리아	7.5	7.9
벨기에	9.0	9.5 [2012]
캐나다	9.1	9.5
칠레	-	-
체코	8.0	8.0
덴마크	14.9	16.3 [2012]
에스토니아	6.4	6.2
핀란드	13.1	14.1 [2012]
프랑스	-	-
독일	11.7	13.0
그리스	-	-
헝가리	6.2	6.4
아이슬란드	14.9	15.5
아일랜드	-	-
이스라엘	4.9	4.9
이탈리아	-	-
일본	9.6	10.5 [2012]
한국	4.3	5.2
룩셈부르크	11.1 [2009]	11.9
멕시코	2.3	2.6
네덜란드	8.4	-
뉴질랜드	9.7	10.0
노르웨이	14.0	16.7
폴란드	5.2	5.3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7.9	8.3
스페인	4.8	5.1
스웨덴	11.0	11.2 [2012]
스위스	14.9	17.4
터키	-	-
영국	9.6	8.2
미국	-	-
평균a(24)	9.2	9.8
최근평균b(24)		9.8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15) 임상간호사, 2013년

(단위: 명/인구,1,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벨기에(2012), 덴마크(2012), 핀란드(2012), 일본(2012), 스웨덴(2012)

16. CT 스캐너

- 우리나라의 CT 스캐너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7.7대로 OECD 평균 보유대수(24.8대)보다 많음.
 - 2008년 우리나라의 CT 스캐너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6.5대로 5년간 1.2대가 증가함.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3.6대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일본은 인구 100만 명당 CT 스캐너 보유대수가 101.3대(2011년)로 가장 많으며, 호주(53.7대), 미국(43.5대), 아이슬란드(40.5대, 2012년), 덴마크(37.8대) 다음으로 한국이 뒤를 이었음.
 - OECD 회원국 중 CT 스캐너 보유 대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5.3대)이며, 헝가리(7.9대), 영국(7.9대), 이스라엘(8.9대)도 인구 100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10대 이하로 낮았음.

〈표 16〉 CT 스캐너 보유 대수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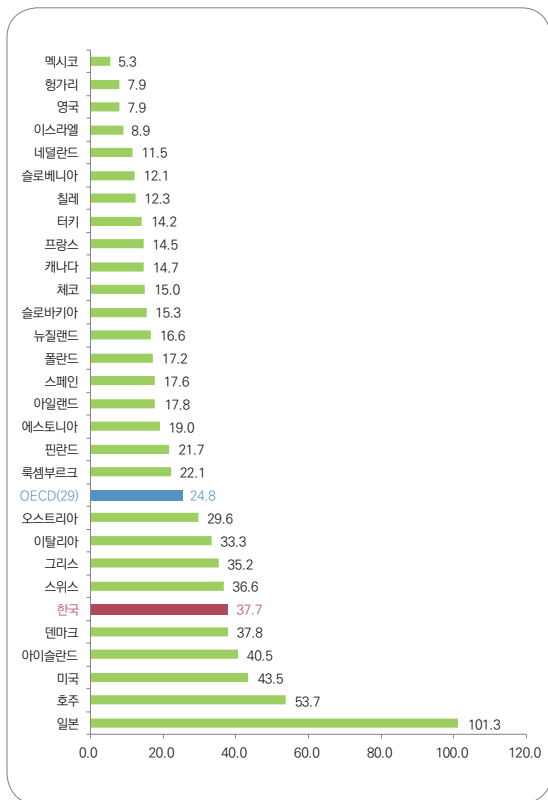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39.1 [2009]	53.7
오스트리아	29.7	29.6
벨기에	-	-
캐나다	13.8 [2009]	14.7
칠레	-	12.3
체코	13.4	15.0
덴마크	21.5	37.8
에스토니아	15.0	19.0
핀란드	20.4 [2009]	21.7
프랑스	10.8	14.5
독일	-	-
그리스	30.8	35.2
헝가리	7.1	7.9
아이슬란드	31.5	40.5 [2012]
아일랜드	14.3	17.8
이스라엘	8.8	8.9
이탈리아	31.0	33.3 [2012]
일본	97.3	101.3 [2011]
한국	36.5	37.7
룩셈부르크	26.6	22.1
멕시코	4.0	5.3
네덜란드	10.2	11.5
뉴질랜드	12.4	16.6
노르웨이	-	-
폴란드	10.9	17.2
포르투갈	27.6	-
슬로바키아	13.8	15.3
슬로베니아	12.4	12.1
스페인	-	17.6
스웨덴	-	-
스위스	32.0	36.6
터키	10.7	14.2
영국	7.3	7.9
미국	34.3 [2007]	43.5
평균a(27)	22.0	25.6
최근평균b(29)		24.8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16] CT 스캐너 보유 대수, 2013년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아이슬란드(2012), 이탈리아(2012), 일본(2011)

17. MRI(자기공명영상) 장비

-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4.5대로 OECD 평균(14.3대)보다 높음.
 - 우리나라는 2008년 MRI 보유 대수가 인구 100만 명당 17.5대를 보유하여 5년간 1.4배 증가하였음.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3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일본(46.9대, 2011년)은 MRI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35.5대)이 그 뒤를 이었음.
 - 멕시코(2.1대), 헝가리(3.0대)는 인구 100만 명당 MRI 보유 대수가 3대 이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표 17〉 MRI 장비 보유대수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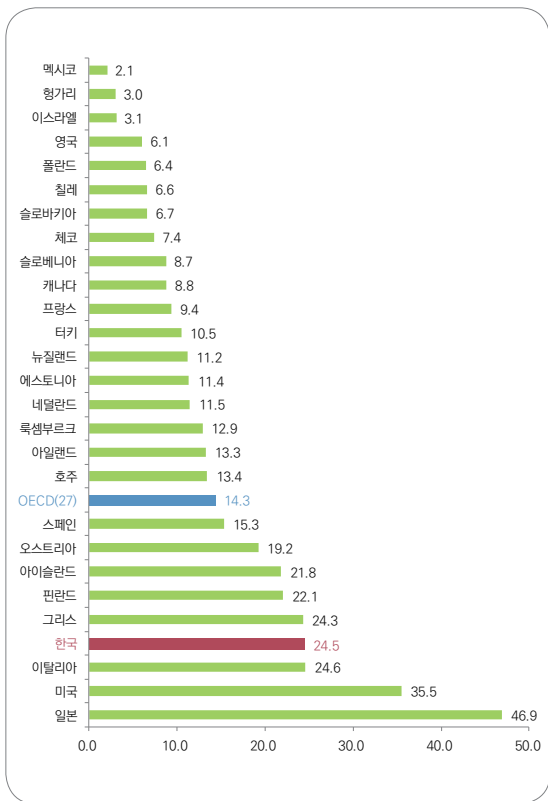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5.7	13.4
오스트리아	18.0	19.2
벨기에	-	-
캐나다	7.9 [2009]	8.8
칠레	-	6.6
체코	5.0	7.4
덴마크	15.4 [2009]	-
에스토니아	8.2	11.4
핀란드	15.6	22.1
프랑스	6.1	9.4
독일	-	-
그리스	19.7	24.3
헝가리	2.8	3.0
아이슬란드	18.9	21.8 [2012]
아일랜드	8.9	13.3
이스라엘	2.1	3.1
이탈리아	20.1	24.6 [2012]
일본	43.1	46.9 [2011]
한국	17.5	24.5
룩셈부르크	12.3	12.9
멕시코	1.6	2.1
네덜란드	10.4	11.5
뉴질랜드	9.6	11.2
노르웨이	-	-
폴란드	2.9	6.4
포르투갈	9.3	-
슬로바키아	6.1	6.7
슬로베니아	6.9	8.7
스페인	-	15.3
스웨덴	-	-
스위스	-	-
터키	7.2	10.5
영국	5.5	6.1
미국	25.9 [2007]	35.5
평균a(26)	11.5	14.6
최근평균b(27)		14.3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17] MRI 장비 보유대수, 2013년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아이슬란드(2012), 이탈리아(2012), 일본(2011)

18. 의학계열 졸업자

- 우리나라의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8.0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1.2명 보다 적었음.
 - 2008년 한국의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9.1명이었으나, 5년 사이 1.1명 줄어들었음. 같은 기간 OECD 평균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1.2명 늘어남.
- OECD회원국 중에는 아일랜드(20.3명), 덴마크(18.4명), 호주(15.5명), 아이슬란드(15.3명, 2012년), 헝가리(15.1명)가 인구 10만 명당 의학계열 졸업자수가 15명 이상으로 많음.
 - 이스라엘(5.1명), 칠레(5.9명), 일본(6.0명)은 인구 10만 명당 의학계열 졸업자수가 6명 이하로 적음.

〈표 18〉 의대졸업자수

(단위: 명/인구100,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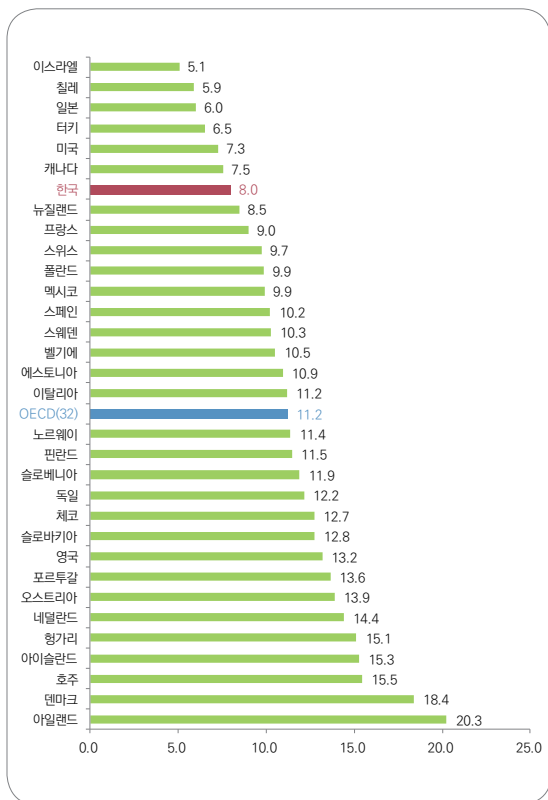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11.2	15.5
오스트리아	21.8	13.9 [2012]
벨기에	7.1	10.5
캐나다	6.4	7.5
칠레	4.9	5.9
체코	11.2	12.7
덴마크	20.4	18.4
에스토니아	8.4	10.9
핀란드	10.3	11.5
프랑스	6.6	9.0 [2012]
독일	12.0	12.2
그리스	14.3 [2007]	-
헝가리	9.6	15.1
아이슬란드	15.4	15.3 [2012]
아일랜드	15.0	20.3
이스라엘	4.5	5.1
이탈리아	11.6	11.2
일본	5.8	6.0
한국	9.1	8.0
룩셈부르크	-	-
멕시코	11.6	9.9
네덜란드	12.3	14.4
뉴질랜드	7.2	8.5
노르웨이	10.4	11.4
폴란드	7.2	9.9
포르투갈	10.4	13.6
슬로바키아	8.5	12.8
슬로베니아	8.6	11.9
스페인	8.5	10.2
스웨덴	10.3	10.3
스위스	8.7	9.7
터키	6.9	6.5
영국	13.1	13.2
미국	6.4	7.3
평균a(32)	10.0	11.2
최근평균b(32)		11.2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18] 의대졸업자수, 2013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오스트리아(2012), 프랑스(2012), 아이슬란드(2012)



제VI장 보건의료이용

19. 의사의 외래진료
20. 치과 의사의 외래진료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22. 제왕절개 건수
23. 신장이식 건수

OECD Health Data



IV. 보건의료이용



19. 의사의 외래진료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6회로 OECD 평균(6.8회)보다 2.1배 많음.
 - 2008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2.9회로 5년간 1.7회 늘어난 반면, OECD 평균은 2008년과 2013년이 동일함.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12.9회(2012년)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진찰 횟수를 기록하였음.
 - OECD 회원국 중 핀란드(2.6회), 멕시코(2.8회), 스웨덴(2.9회)은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횟수가 3.0회 이하로 낮았음.

〈표 19〉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건수(국민1인당)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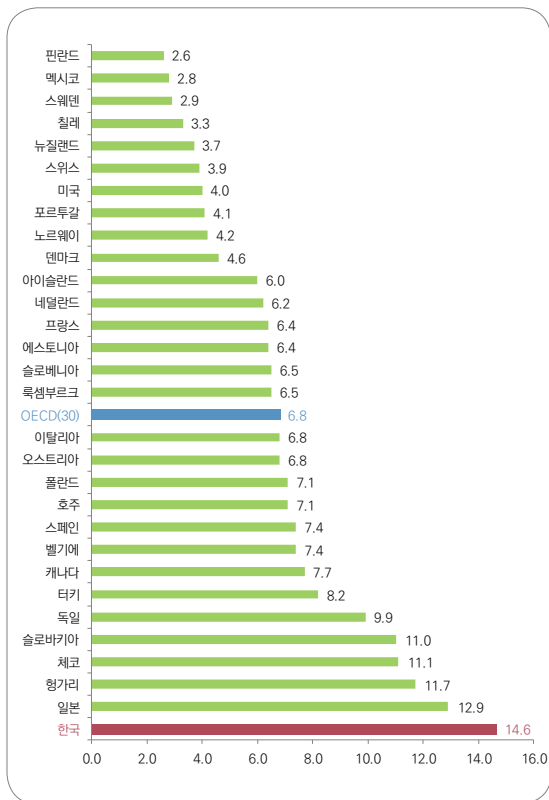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6.4	7.1
오스트리아	6.9	6.8
벨기에	7.5	7.4 [2011]
캐나다	7.7	7.7 [2012]
칠레	3.0	3.3 [2012]
체코	11.4	11.1
덴마크	4.6	4.6
에스토니아	6.6	6.4
핀란드	4.3	2.6
프랑스	6.7	6.4
독일	8.6	9.9
그리스	4.0 [2006]	-
헝가리	11.3	11.7
아이슬란드	6.4	6.0
아일랜드	3.3 [2007]	-
이스라엘	-	-
이탈리아	6.1 [2005]	6.8
일본	13.2	12.9 [2012]
한국	12.9	14.6
룩셈부르크	6.6	6.5
멕시코	2.8	2.8
네덜란드	5.9	6.2
뉴질랜드	4.1 [2007]	3.7 [2012]
노르웨이	3.9	4.2
폴란드	6.8	7.1
포르투갈	4.5	4.1 [2012]
슬로바키아	12.1	11.0
슬로베니아	6.7	6.5
스페인	8.1 [2006]	7.4 [2011]
스웨덴	2.9	2.9
스위스	4.0 [2007]	3.9 [2012]
터키	6.7	8.2
영국	5.9	-
미국	3.9	4.0 [2010]
평균a(30)	6.8	6.8
최근평균b(30)		6.8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19]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건수(국민1인당), 2013년

(단위: 건)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벨기에(2011), 캐나다(2012), 칠레(2012), 일본(2012), 뉴질랜드(2012), 포르투갈(2012), 스페인(2011), 스위스(2012), 미국(2010)

20. 치과 의사의 외래 진료

-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치과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연간 횟수는 1.9회로 OECD 회원국 평균(1.1회)보다 많음.
 - 2008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치과 의사의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1.6회로 2013년까지 0.3회 늘어난 반면, OECD 회원국 평균 횟수는 2008년과 2013년 사이 0.1회 줄어듦.
- OECD 회원국 중 일본은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3.2회(2012년)로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2.2회)도 연간 2회 이상의 높은 치과 의사 진료 횟수를 기록하였음.
 - 포르투갈(0.0회, 2012년), 멕시코(0.2회), 터키(0.5회), 이탈리아(0.5회)는 국민 1인당 치과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연간 0.5회 이하로 매우 낮았음.

〈표 20〉 치과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국민 1인당)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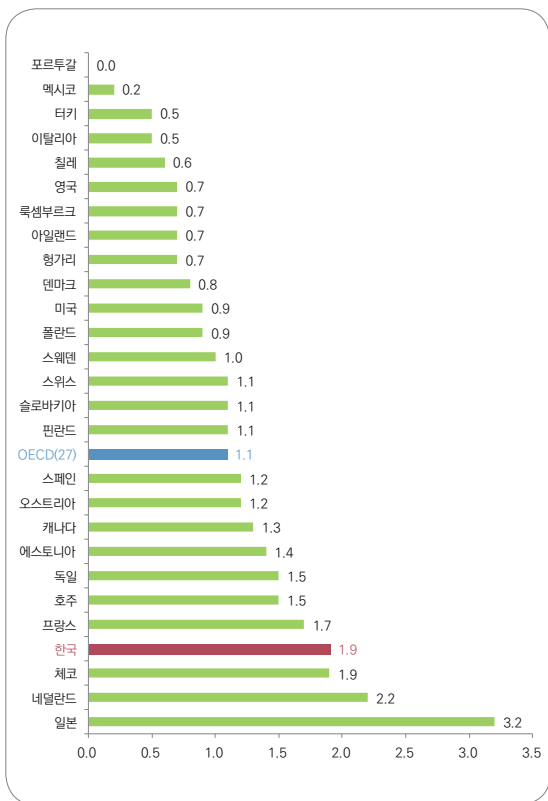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1.4	1.5 [2010]
오스트리아	1.3	1.2
벨기에	2.2	-
캐나다	1.3	1.3
칠레	0.7	0.6 [2012]
체코	1.9	1.9
덴마크	0.9	0.8
에스토니아	1.5	1.4
핀란드	1.3	1.1
프랑스	1.6	1.7
독일	1.4	1.5
그리스	-	-
헝가리	0.8	0.7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0.7 [2010]
이스라엘	2.3 [2009]	-
이탈리아	0.9 [2005]	0.5
일본	3.2	3.2 [2012]
한국	1.6	1.9
룩셈부르크	0.7	0.7
멕시코	0.2	0.2
네덜란드	2.2	2.2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0.8	0.9
포르투갈	0.0	0.0 [2012]
슬로바키아	1.5	1.1
슬로베니아	-	-
스페인	1.5 [2006]	1.2
스웨덴	-	1.0
스위스	1.2 [2007]	1.1 [2012]
터키	0.3	0.5
영국	0.7	0.7
미국	1.0	0.9 [2012]
평균a(26)	1.2	1.1
최근평균b(27)		1.1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20) 치과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국민 1인당), 2013년

(단위: 건)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0), 칠레(2012), 아일랜드(2010), 일본(2012), 포르투갈(2012), 스위스(2012), 미국(2012)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환자 1인당 입원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는 16.5일로 OECD 회원국 평균(8.3일)보다 2배 가까이 길었음.
 - 2008년 우리나라의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7.5일로 2013년까지 1.0일이 감소함. OECD 평균은 2008년과 2013년 사이 0.6일 줄어듦.
- OECD 회원국 중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30.6일을 기록함.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평균병원재원일수가 긴 국가임.
 - 터키(3.9일)와 멕시코(4.0일), 덴마크(4.3일)는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5일 이하로 OECD 회원국 중 짧은 재원일수를 기록함.

〈표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단위: 일)

	2008	2013
호주	6.0	5.6 [2012]
오스트리아	7.9	8.1
벨기에	8.1	7.9 [2012]
캐나다	-	-
칠레	5.7	5.7 [2012]
체코	10.0	9.4
덴마크	5.2	4.3
에스토니아	7.8	7.5
핀란드	12.6	10.8
프랑스	10.9	10.1 [2012]
독일	9.8	9.1
그리스	6.6	6.6 [2010]
헝가리	9.2	9.5 [2012]
아이슬란드	5.8	5.9
아일랜드	7.7	6.0
이스라엘	6.4	6.5
이탈리아	7.8	7.9
일본	33.8	30.6
한국	17.5	16.5
룩셈부르크	8.9	8.9
멕시코	3.9	4.0
네덜란드	10.8 [2006]	-
뉴질랜드	9.6	7.9
노르웨이	7.3	6.1
폴란드	7.9	7.0
포르투갈	8.4	8.9
슬로바키아	8.5	7.5 [2012]
슬로베니아	6.9	6.5
스페인	8.1	7.6
스웨덴	6.5	5.8 [2012]
스위스	10.7	8.7
터키	4.1	3.9
영국	8.0	7.1
미국	6.3	6.1 [2011]
평균a(32)	8.9	8.3
최근평균b(32)		8.3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I. 건강상태

II. 보건서비스로 결정요인

III. 보건의료자원

IV. 보건의료이용

V. 보건의료비용

VI. 의료품질·서비스·공평·편평

VII. 장기요양

[그림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2013년

(단위: 일)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2), 벨기에(2012), 칠레(2012), 프랑스(2012), 그리스(2010), 헝가리(2012), 슬로바키아(2012), 스웨덴(2012), 미국(2011)

22. 제왕절개 건수

- 우리나라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360.0건 (2012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54.4건보다 1.4배 많음.
 - 2008년과 2013년 사이 OECD 평균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15.2건 늘어났으나, 우리나라는 2008년과 2012년 사이 6.2건 늘어남.
- OECD 회원국 중 터키는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50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탈리아(361.4건)와 한국(360.0건, 2012년)이 그 뒤를 이었음.
 - 이스라엘(154.3건)은 OECD 회원국 중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가장 낮았으며, 네덜란드(155.9건, 2010년), 핀란드(158.0건)도 160건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표 22〉 제왕절개 건수

(단위: 건/출생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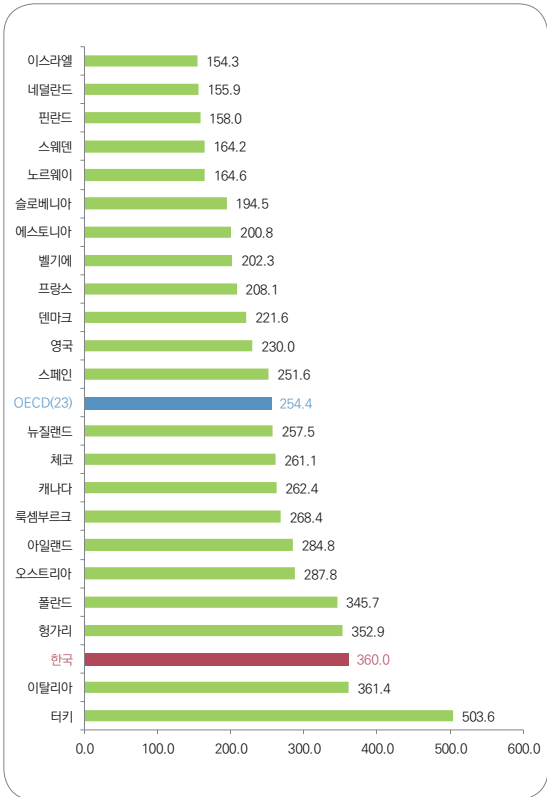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	-
오스트리아	271.0	287.8
벨기에	196.5	202.3 [2012]
캐나다	263.6	262.4 [2011]
칠레	-	-
체코	204.8	261.1
덴마크	211.8	221.6
에스토니아	199.8	200.8
핀란드	164.9	158.0
프랑스	206.4	208.1
독일	-	-
그리스	-	-
헝가리	304.5	352.9 [2012]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255.6	284.8
이스라엘	175.1	154.3
이탈리아	385.9	361.4
일본	-	-
한국	353.8	360.0 [2012]
룩셈부르크	268.4	268.4
멕시코	-	-
네덜란드	143.0	155.9 [2010]
뉴질랜드	232.7	257.5
노르웨이	-	164.6
폴란드	192.8	345.7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169.5	194.5 [2012]
스페인	247.4	251.6
스웨덴	166.7	164.2
스위스	325.2	-
터키	417.5	503.6
영국	231.7	230.0
미국	-	-
평균a(23)	239.2	254.4
최근평균b(23)		254.4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22) 제왕절개 건수, 2013년

(단위: 건/출생아,1,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벨기에(2012), 캐나다(2011), 헝가리(2012), 한국(2012), 네덜란드(2010), 슬로베니아(2012)

23. 신장이식 건수

-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신장이식 건수는 3.5건으로 OECD 회원국 평균(3.4건) 보다 다소 높았음.
 - 2008년 우리나라의 신장이식 건수는 2.3건으로 5년 사이 1.5배 증가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신장이식 건수는 같은 기간 1.1배 증가하였음.
- OECD 회원국 중 신장이식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스페인과 노르웨이로 인구 10만 명당 5.5건을 기록하였으며, 미국(5.3건), 네덜란드(5.2건, 2010년), 오스트리아(5.1건)도 인구 10만 명당 5건 이상의 높은 신장이식 건수를 기록함.
 - 룩셈부르크(0.0건), 슬로베니아(0.0건), 그리스(1.1건, 2010년), 일본(1.2건)은 인구 10만 명당 신장이식 건수가 2건 미만으로 낮았음.

〈표 23〉 신장이식 건수

(단위: 건/인구100,000명)

	2008	2013
호주	3.8	4.0 [2012]
오스트리아	4.3	5.1
벨기에	4.6	4.9 [2012]
캐나다	3.8	3.8 [2011]
칠레	1.7	2.8 [2012]
체코	3.4	4.4
덴마크	4.1	4.7
에스토니아	4.5	3.6
핀란드	2.6	3.5
프랑스	4.4	4.5
독일	3.3	2.8
그리스	2.4	1.1 [2010]
헝가리	2.1	3.0 [2012]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3.3	4.0
이스라엘	2.1	3.3
이탈리아	2.8	2.9
일본	0.9	1.2
한국	2.3	3.5
룩셈부르크	0.6	0.0
멕시코	2.0	2.3
네덜란드	4.7	5.2 [2010]
뉴질랜드	2.8	2.6
노르웨이	-	5.5
폴란드	0.9	2.5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3.0	2.2
슬로베니아	2.4	0.0
스페인	4.9	5.5
스웨덴	4.6	4.3
스위스	3.8	-
터키	2.3	3.9
영국	3.5	4.3
미국	5.4	5.3
평균a(30)	3.1	3.4
최근평균b(31)		3.4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I. 건강상태

II. 보건서비스로 제공되는

III. 보건의료자원

IV. 보건의료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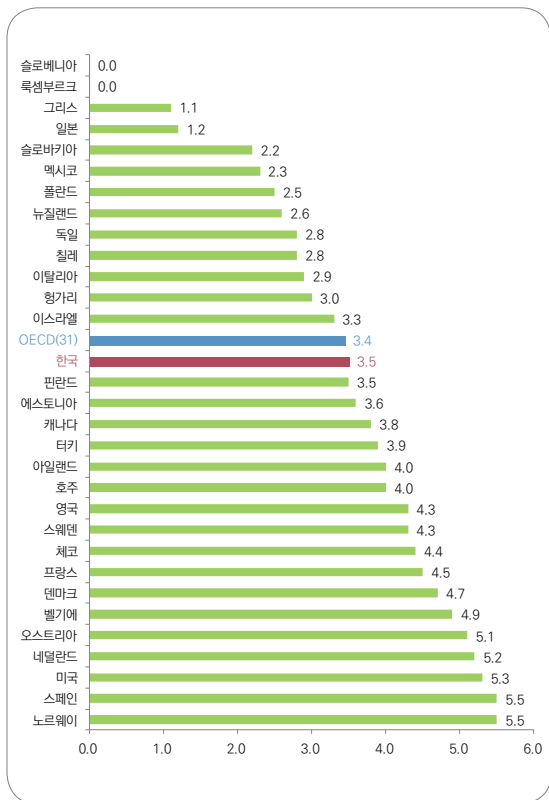
V. 보건의료비용

VI. 의료서비스접근성

VII. 장기요양

[그림 23] 신장이식 건수, 2013년

(단위: 건/인구100,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2), 벨기에(2012), 캐나다(2011), 칠레(2012), 그리스(2010), 헝가리(2012), 네덜란드(2010)



제 V 장 보건의료비용

- 24. GDP대비 경상의료비
- 25.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등 지출 비율
-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OECD Health Data

 2015

V. 보건의료비용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

-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대비 6.9%로 OECD 회원국 평균(8.9%)보다 낮음.
 - 2008년에 비해 2013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의료비는 1.1%p 증가하여, 같은 기간 OECD 평균 증가(0.6%p)보다 높은 증가폭을 기록함.
 - 우리나라의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매우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은 GDP대비 경상의료비가 16.4%로 가장 높은 지출 비율을 기록하였음.
 - OECD 회원국 중 터키(5.1%), 에스토니아(6.0%), 멕시코(6.2%) 폴란드(6.4%), 룩셈부르크(6.6%, 2012년), 한국(6.9%)은 GDP대비 경상의료비가 7% 미만으로 낮았음.

*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에 대한 지출로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구성됨. OECD는 2015년부터 국민 의료비(경상의료비+자본투자) 대신 경상의료비를 대표 지표로 발표함.

〈표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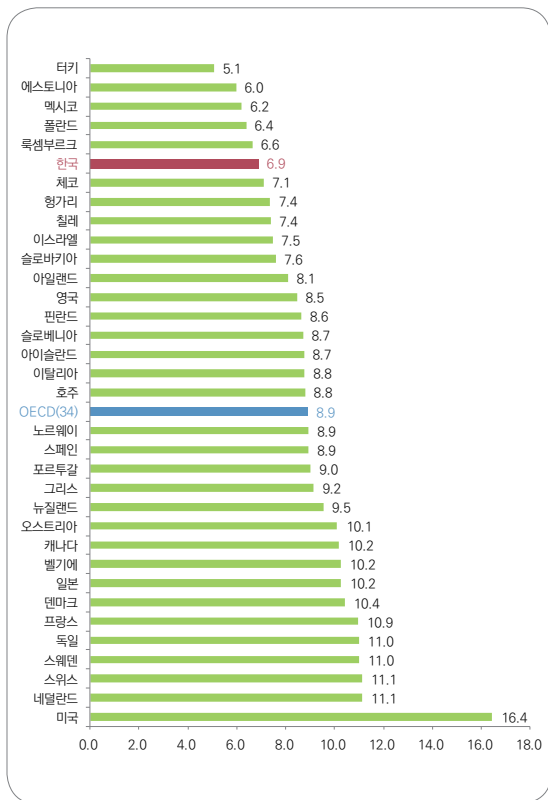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8.3	8.8 [2012]
오스트리아	9.6	10.1
벨기에	9.4	10.2
캐나다	9.5	10.2
칠레	6.8	7.4
체코	6.4	7.1
덴마크	9.5	10.4
에스토니아	5.7	6.0
핀란드	7.6	8.6
프랑스	10.2	10.9
독일	10.2	11.0
그리스	9.8	9.2
헝가리	7.2	7.4
아이슬란드	8.7	8.7
아일랜드	8.3	8.1 [2012]
이스라엘	7.0	7.5
이탈리아	8.6	8.8
일본	8.5	10.2
한국	5.8	6.9
룩셈부르크	6.6	6.6 [2012]
멕시코	5.9	6.2
네덜란드	9.6	11.1
뉴질랜드	9.2	9.5
노르웨이	8.0	8.9
폴란드	6.4	6.4
포르투갈	9.3	9.0
슬로바키아	7.5	7.6
슬로베니아	7.8	8.7
스페인	8.4	8.9 [2012]
스웨덴	8.3	11.0
스위스	9.8	11.1
터키	5.5	5.1
영국	7.9	8.5
미국	15.3	16.4
평균a(34)	8.3	8.9
최근평균b(34)		8.9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 2013년

(단위: %)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2), 아일랜드(2012), 룩셈부르크(2012), 스페인(2012)

25.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율은 55.9%로 OECD 회원국 평균(72.7%)보다 낮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경상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여 2010년에는 58.0%까지 늘어남. 그러나 OECD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함.

〈경상의료비 중 공공부문 지출 비율(%)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54.9	56.4	56.7	56.5	57.6	58.0	57.2	56.3	55.9
OECD 평균*	71.3	71.7	71.8	72.5	73.2	73.0	73.1	72.7	72.7

* OECD 평균은 해당년도 수치가 없는 경우 해당년도 기준시점의 최근접년도 수치를 반영하여 산출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87.6%), 영국(86.6%), 노르웨이(85.0%)로 85% 이상을 공공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음.
- 칠레(46.1%), 미국(48.2%)은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50% 미만으로 낮은 국가임.

〈표 25〉 경상의료비 중 공공자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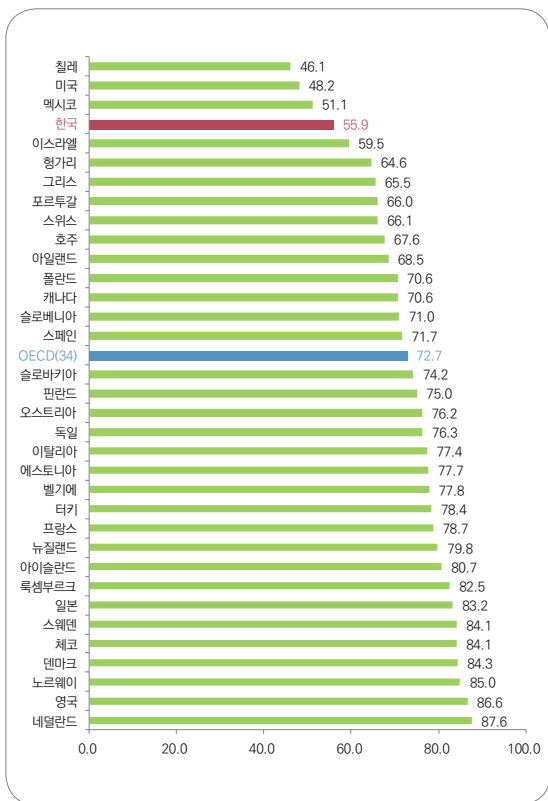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69.0	67.6 [2012]
오스트리아	76.5	76.2
벨기에	77.1	77.8
캐나다	69.8	70.6
칠레	42.9	46.1
체코	82.1	84.1
덴마크	84.0	84.3
에스토니아	78.4	77.7
핀란드	74.5	75.0
프랑스	78.0	78.7
독일	75.5	76.3
그리스	59.9	65.5
헝가리	66.6	64.6
아이슬란드	82.6	80.7
아일랜드	75.4	68.5 [2012]
이스라엘	61.7	59.5
이탈리아	77.7	77.4
일본	81.2	83.2
한국	56.5	55.9
룩셈부르크	87.3	82.5 [2012]
멕시코	44.5	51.1
네덜란드	86.1	87.6
뉴질랜드	80.6	79.8
노르웨이	84.1	85.0
폴란드	71.7	70.6
포르투갈	69.0	66.0
슬로바키아	70.5	74.2
슬로베니아	73.6	71.0
스페인	72.6	71.7 [2012]
스웨덴	81.8	84.1
스위스	65.2	66.1
터키	72.7	78.4
영국	87.9	86.6
미국	47.1	48.2
평균a(34)	72.5	72.7
최근평균b(34)		72.7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25) 경상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2013년

(단위: %)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2), 아일랜드(2012), 룩셈부르크(2012), 스페인(2012)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은 36.9%로 OECD 평균인 19.5%에 1.9배가량 높았음.
 - 2008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중 가계지출비율은 37.9%로 5년 사이 1.0%p 줄었음.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0.7%p 줄었음.
- OECD 회원국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멕시코로 44.7%를 기록하였으며,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부담 비율을 기록하였음.
 - OECD 회원국 중 네덜란드(5.3%), 프랑스(6.7%), 영국(9.9%)은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았음.

〈표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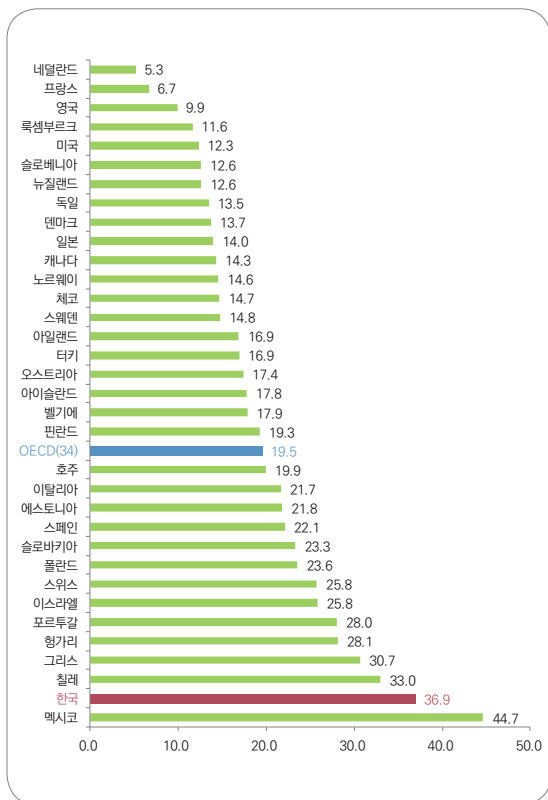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19.0	19.9 [2012]
오스트리아	17.5	17.4
벨기에	18.5	17.9
캐나다	15.4	14.3
칠레	36.8	33.0
체코	16.1	14.7
덴마크	14.1	13.7
에스토니아	20.5	21.8
핀란드	19.9	19.3
프랑스	7.9	6.7
독일	14.1	13.5
그리스	37.9	30.7
헝가리	26.3	28.1
아이슬란드	16.0	17.8
아일랜드	15.3	16.9
이스라엘	25.0	25.8
이탈리아	21.3	21.7
일본	15.2	14.0 [2012]
한국	37.9	36.9
룩셈부르크	10.1	11.6 [2012]
멕시코	51.9	44.7
네덜란드	6.2	5.3
뉴질랜드	13.5	12.6
노르웨이	15.7	14.6
폴란드	24.4	23.6
포르투갈	25.8	28.0
슬로바키아	26.1	23.3
슬로베니아	12.6	12.6
스페인	21.0	22.1 [2012]
스웨덴	16.9	14.8
스위스	24.8	25.8
터키	19.2	16.9
영국	9.7	9.9
미국	13.3	12.3
평균a(34)	20.2	19.5
최근평균b(34)		19.5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율, 2013년

(단위: %)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2), 일본(2012), 룩셈부르크(2012), 스페인(2012)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율

-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은 20.6%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 16.6%보다 높았음.
 - 우리나라의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율은 2008년 23.9%로, 2013년까지 3.3%p가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3%p 줄어듦.
- OECD회원국 중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30.6%를 기록하였으며, 그리스(30.5%)도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덴마크(6.3%), 노르웨이(7.5%), 네덜란드(7.7%)는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율이 8% 이하로 낮았음.

〈표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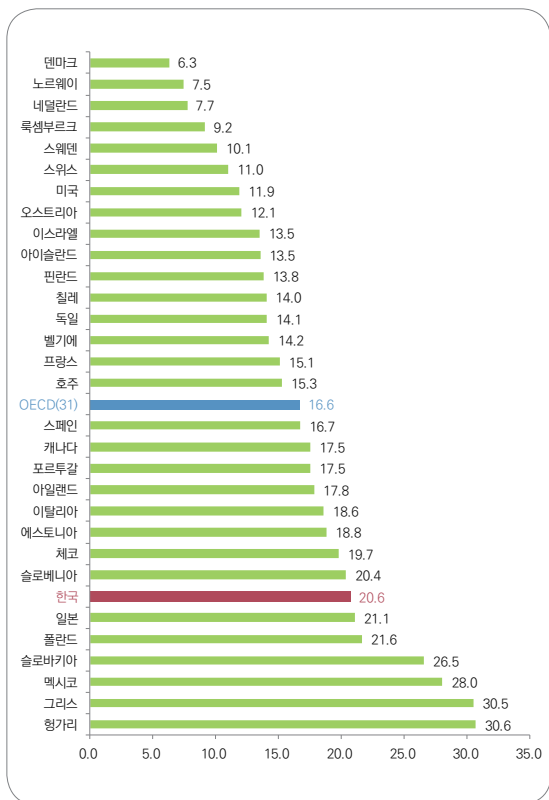
	2008	2013
호주	15.4	15.3 [2012]
오스트리아	13.6	12.1
벨기에	16.3	14.2
캐나다	17.8	17.5
칠레	12.7 [2007]	14.0
체코	20.9	19.7
덴마크	8.3	6.3
에스토니아	21.6	18.8
핀란드	15.5	13.8
프랑스	17.1	15.1
독일	15.4	14.1
그리스	28.3 [2009]	30.5
헝가리	31.9	30.6
아이슬란드	14.6	13.5
아일랜드	17.6	17.8 [2012]
이스라엘	13.4	13.5 [2011]
이탈리아	19.2	18.6
일본	19.9	21.1 [2012]
한국	23.9	20.6
룩셈부르크	10.2	9.2 [2012]
멕시코	33.9	28.0
네덜란드	10.3	7.7
뉴질랜드	10.4 [2007]	-
노르웨이	7.9	7.5
폴란드	24.6	21.6
포르투갈	21.2	17.5 [2012]
슬로바키아	29.0	26.5
슬로베니아	19.1	20.4
스페인	18.9	16.7 [2012]
스웨덴	13.7	10.1
스위스	10.1	11.0
터키	-	-
영국	12.3	-
미국	12.9	11.9
평균a(31)	17.9	16.6
최근평균b(31)		16.6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율, 2013년

(단위: %)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2), 아일랜드(2012), 이스라엘(2011), 일본(2012), 룩셈부르크(2012), 포르투갈(2012), 스페인(2012)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를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인 US\$ PPP(구매력평가환율, Purchasing Power Parity)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2,275 US\$ PPP로 OECD 회원국 평균 3,453 US\$ PPP보다 1,178 US\$ PPP낮았음.
 - 2008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1,666 US\$ PPP로 5년 사이 1.4배 증가하였음.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1.2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8,713 US\$ PPP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배 많았음.
 - 터키(941 US\$ PPP), 멕시코(1,048 US\$ PPP)는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이 1,500 US\$ PPP 이하로 낮은 수준임.

〈표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단위: US\$ PPP)

	2008	2013
호주	3,310	3,866 [2012]
오스트리아	3,965	4,553
벨기에	3,554	4,256
캐나다	3,816	4,351
칠레	1,118	1,623
체코	1,728	2,040
덴마크	3,893	4,553
에스토니아	1,284	1,542
핀란드	3,020	3,442
프랑스	3,579	4,124
독일	3,902	4,819
그리스	3,011	2,366
헝가리	1,487	1,719
아이슬란드	3,628	3,677
아일랜드	3,621	3,663 [2012]
이스라엘	1,903	2,428
이탈리아	3,011	3,077
일본	2,862	3,713
한국	1,666	2,275
룩셈부르크	4,128	4,371 [2012]
멕시코	875	1,048
네덜란드*	4,398	5,131
뉴질랜드	2,722	3,328
노르웨이	4,973	5,862
폴란드	1,158	1,530
포르투갈*	2,435	2,482
슬로바키아	1,781	2,010
슬로베니아	2,323	2,511
스페인	2,836	2,928 [2012]
스웨덴	3,479	4,904
스위스	4,933	6,325
터키	827	941
영국	2,986	3,235
미국	7,428	8,713
평균a(34)	2,989	3,453
최근평균b(34)		3,453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I. 건강상태

II. 보건의료로 관련된

III. 보건의료자원

IV. 보건의료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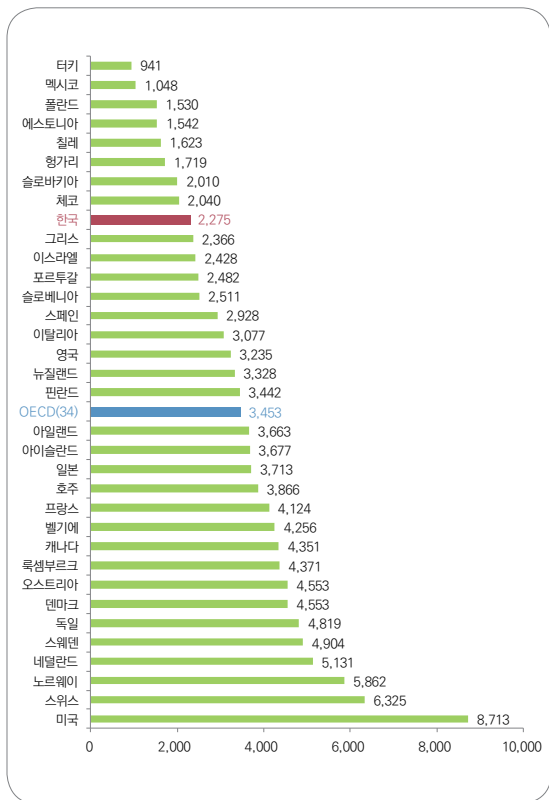
V. 보건의료비용

VI. 의료서비스품질과 만족도

VII. 장기요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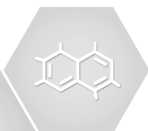
[그림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2013년

(단위: US\$ PPP)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호주(2012), 아일랜드(2012), 룩셈부르크(2012), 스페인(2012)



제Ⅵ장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29. 의약품 소비량

30. 의약품 판매액

OECD Health Data

 **2015**

VI.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29. 의약품 소비량*

- ATC(WHO 의약품 분류 기준) 대분류별로 볼 때 2012년 우리나라의 의약품 소비량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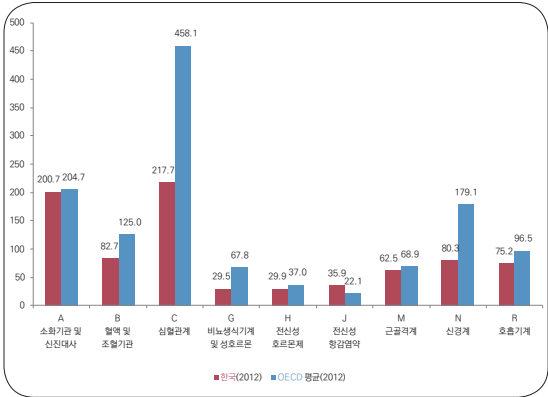
–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혈액 및 조혈기관, 심혈관계,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전신성 호르몬제, 근골격계, 신경계, 호흡기계 등 전신성 항감염약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의 소비량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음.

– 우리나라의 항생제(전신성항균물질, J01)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28.4DDD(Defined Daily Dose · 일일상용량)로 OECD 평균(20.3DDD)에 비해 높았음.

* 2013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통계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15”가 발간되는 올해 11월경에 발표될 예정으로, 본 자료는 2012년 기준 자료로 작성됨.

[그림 29]의약품 소비량, 2012년

(단위: DDD/1,000인/1일)



주) DDD(Defined Daily Dose)란 약품의 일일상용량을 의미함.

30. 의약품 판매액*

-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2012년 우리나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음.
 - －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혈액 및 조혈기관, 전신성 항감염약, 근골격계 등의 의약품은 우리나라의 판매액이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음.
 - － 비뇨생식계기 및 성호르몬, 전신성 호르몬제, 신경계, 호흡기계 등은 우리나라의 판매액이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음.

* 2013년 기준 의약품 소비량 통계는 “OECD Health at a Glance 2015”가 발간되는 올해 11월경에 발표될 예정으로, 본 자료는 2012년 기준 자료로 작성됨.

〈표 30-1〉의약품 판매액(US\$)

(단위: 1인당 US\$)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한국 포함)		
			(최저~최고)	평균값	증감값
	총판매	375.8	91.0 ~ 791.8	420.2	407.4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56.5	13.1 ~ 113.5	52.1	55.3
A02A	제산제	1.7	0.0 ~ 1.9	0.7	0.6
A02B	위궤양 치료제	13.2	1.4 ~ 30.4	12.1	11.0
A10	당뇨병 치료제	10.2	3.7 ~ 33.1	19.1	18.9
B	혈액 및 조혈기관	29.4	2.6 ~ 59.1	28.4	26.9
C	심혈관계	50.8	9.9 ~ 138.6	67.5	61.2
C01A	강심배당제	0.0	0.0 ~ 0.6	0.2	0.1
C01B	항부정맥약	0.2	0.1 ~ 1.9	0.9	0.9
C02	혈압강하제	0.6	0.2 ~ 6.3	2.5	2.3
C03	이뇨제	0.4	0.2 ~ 6.9	3.0	2.9
C07	베타 차단제	2.8	1.2 ~ 11.3	5.8	5.9
C08	칼슘 차단제	7.8	0.5 ~ 8.0	4.5	4.5
C09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18.9	3.7 ~ 54.8	21.6	20.6
C10	지질완화 약물	14.5	2.0 ~ 70.1	19.7	15.1
G	비노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9.9	3.6 ~ 47.1	18.7	18.1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2.3	1.5 ~ 21.6	8.4	7.7
H	전신성 호르몬제	2.9	1.6 ~ 16.3	9.4	10.4
J	전신성 항감염약	49.0	7.5 ~ 69.7	35.1	28.8
J01	전신성 항균물질	23.6	3.4 ~ 34.1	14.3	12.9
M	근골격계	21.8	4.3 ~ 47.5	19.0	19.1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10.5	1.3 ~ 15.3	8.6	8.8
N	신경계	30.2	11.7 ~ 141.4	73.8	79.3
N02	진통제	5.9	1.8 ~ 37.7	15.0	12.7
N05B	불안제거약	1.1	0.1 ~ 8.2	2.8	1.9
N05C	최면제 및 진정제	0.6	0.0 ~ 11.6	2.7	1.6
N06A	항우울제	3.0	2.2 ~ 21.4	11.0	9.8
R	호흡기계	18.5	11.8 ~ 66.0	33.8	32.6
R03	기도폐색질환약	5.2	2.6 ~ 42.4	22.2	23.4
	기타*	106.8	0.0 ~ 295.2	98.6	101.3

* 기타에는 모든 ATC의 투약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표 30-2〉 의약품 판매액(US\$, P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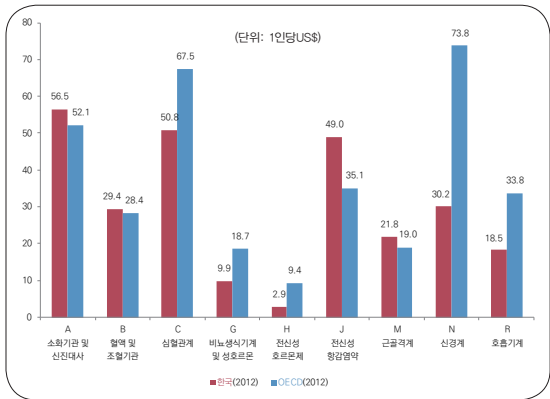
(단위: 1인당 US\$, PPP**)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한국 포함)		
			(최저~최고)	평균값	중앙값
	총판매	499.3	143.9 ~ 640.8	409.0	408.7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75.1	11.2 ~ 91.2	51.8	49.1
A02A	제산제	2.3	0.0 ~ 2.3	0.7	0.6
A02B	위궤양 치료제	17.5	1.2 ~ 30.0	12.2	10.6
A10	당뇨병 치료제	13.5	5.2 ~ 37.8	19.9	18.4
B	혈액 및 조혈기관	39.1	3.7 ~ 68.5	28.1	28.6
C	심혈관계	67.5	13.8 ~ 160.9	67.6	70.5
C01A	강심배당체	0.0	0.0 ~ 0.5	0.2	0.1
C01B	항부정맥약	0.2	0.1 ~ 1.8	0.9	0.8
C02	혈압강하제	0.8	0.3 ~ 6.0	2.6	2.0
C03	이뇨제	0.5	0.3 ~ 6.4	3.1	3.3
C07	베타 차단제	3.7	1.7 ~ 10.7	6.0	6.0
C08	칼슘 차단제	10.4	0.7 ~ 10.4	4.7	4.6
C09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25.0	4.9 ~ 63.6	23.1	23.7
C10	지질완화 약물	19.2	3.5 ~ 58.5	19.6	18.4
G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13.2	3.5 ~ 36.0	18.4	18.7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3.1	2.0 ~ 19.9	8.5	8.6
H	전신성 호르몬제	3.9	2.8 ~ 18.3	9.0	8.9
J	전신성 항감염약	65.2	8.3 ~ 80.7	35.0	30.2
J01	전신성 항균물질	31.4	2.9 ~ 39.5	15.3	12.1
M	근골격계	28.9	3.6 ~ 32.9	19.4	17.6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14.0	1.1 ~ 16.4	9.0	9.5
N	신경계	40.1	20.3 ~ 130.4	70.0	71.7
N02	진통제	7.9	3.1 ~ 27.0	14.2	13.4
N05B	불안제거약	1.5	0.2 ~ 8.9	2.9	2.3
N05C	최면제 및 진정제	0.8	0.0 ~ 10.7	2.6	1.9
N06A	항우울제	4.0	3.8 ~ 20.0	10.9	11.4
R	호흡기계	24.6	9.5 ~ 55.8	32.9	33.3
R03	기도폐쇄질환약	6.9	3.6 ~ 37.3	21.7	23.5
	기타*	141.8	0.0 ~ 225.0	9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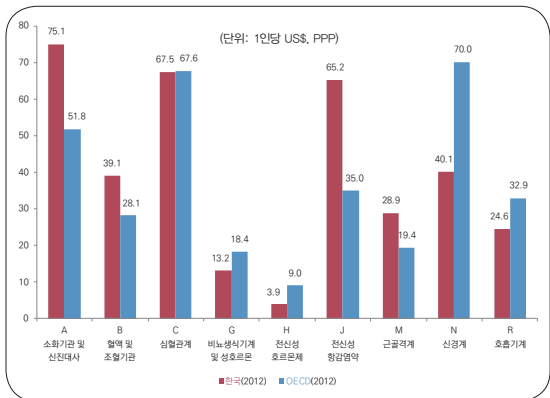
* 기타에는 모든 ATC의 투약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 PPP(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그림 30-1] 의약품 판매액(US\$), 2012년



[그림 30-2]의약품 판매액(US\$ PPP), 2012년



주) PPP(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제Ⅶ장 장기요양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VII. 장기요양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54.2개로 OECD 평균(51.8개) 보다 다소 높음.
 - 2008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29.1개로 5년 사이 1.9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남.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0.9병상 줄어듦.
 - 전체 장기요양 병원병상과 시설침상 중 병원병상의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음.
-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벨기에로 72.1개(시설침상: 2012년)를 기록하였음.
 - 폴란드(18.0개), 이탈리아(18.9개, 2012년)는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의 수가 20개 미만으로 OECD 회원국 중 매우 낮았음.

〈표31〉 장기요양병원병상과 장기요양시설침상 수

(단위: 병상수(침상수)/65세 이상 인구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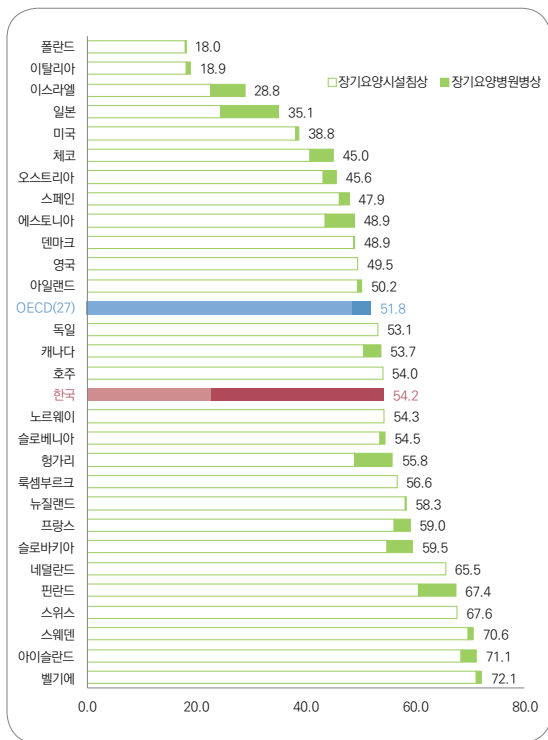
	2008			2013		
	전체	병원병상	시설침상	전체	병원병상	시설침상
호주	58.4	0.0	58.4	54.0	0.0	54.0
오스트리아	41.0	1.9	39.1[2009]	45.6	2.4	43.2
벨기에	73.3	1.0	72.3	72.1	0.9	71.2 [2012]
캐나다	62.0	3.7	58.3	53.7	3.2 [2012]	50.5 [2012]
칠레	-	0.2	-	-	0.1	-
체코	50.0	4.5	45.5	45.0	4.2	40.8
덴마크	54.1	0.1	54.0	48.9	0.2	48.7 [2011]
에스토니아	39.7	6.4	33.3	48.9	5.3	43.6
핀란드	76.7	15.1	61.6	67.4	6.9	60.5
프랑스	56.2	6.0	50.2	59.0	2.8	56.2
독일	50.5	0.0	50.5[2009]	53.1	0.0	53.1
그리스	-	-	-	-	-	-
헝가리	56.8	7.0	49.8	55.8	6.9	48.9
아이슬란드	80.0	5.2	74.8	71.1	2.8	68.3 [2012]
아일랜드	61.9	14.0	47.9	50.2	0.7	49.5
이스라엘	32.9	7.0	25.9	28.8	6.3	22.5
이탈리아	17.1	0.9	16.2	18.9	0.8 [2012]	18.1 [2012]
일본	39.0	12.7	26.3	35.1	10.7	24.4
한국	29.1	15.2	13.9	54.2	31.4	22.8
룩셈부르크	50.1	0.0	50.1	56.6	0.0	56.6 [2012]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70.1	0.0	70.1	65.5	0.0	65.5 [2012]
뉴질랜드	59.7	0.0	59.7[2009]	58.3	0.2 [2014]	58.1
노르웨이	59.6	0.0	59.6	54.3	0.0	54.3 [2012]
폴란드	17.7	0.5	17.2	18.0	0.1	17.9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52.9	6.0	46.9	59.5	4.6	54.9
슬로베니아	-	0.3	-	54.5	0.9	53.6
스페인	28.6	2.0	26.6	47.9	1.8	46.1 [2012]
스웨덴	85.5	1.4	84.1	70.6	1.0	69.6
스위스	72.9	0.0	72.9	67.6	0.0	67.6
터키	-	0.0	-	-	0.0	-
영국	54.6	0.0	54.6	49.5	0.0	49.5
미국	43.3	0.8	42.5	38.8	0.6 [2012]	38.2 [2012]
평균a(26)	52.6	4.0	48.7	51.7	3.4	48.4
최근평균b(27)				51.8	3.3	48.6

a) 평균은 2008, 2013년 모두 이용 가능한 OECD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b) 최근평균은 OECD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그림31] 장기요양병원병상과 장기요양시설침상 수, 2013년

(단위: 병상수(침상수)/65세 이상 인구1,000명)



주) 1. OECD: 최근평균으로 국가의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되었음.

2. 벨기에(시설침상:2012), 캐나다(병원병상:2012, 시설침상:2012), 덴마크(시설침상:2011), 아이슬란드(시설침상:2010), 이탈리아(병원병상:2012, 시설침상:2012), 룩셈부르크(시설침상:2012), 네덜란드(시설침상:2012), 뉴질랜드(병원병상:2014), 노르웨이(시설침상:2012), 스페인(시설침상:2012), 미국(시설침상:2012, 병원병상:2012)

OECD Health Data 2015

본 서적은 OECD Health Data 2015에서 주요 지표만을 발췌하여 구성·편집한 자료이며, OECD 공식 번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 (044)202-22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 (044)287-8136

- 만든 곳

경성문화사 ☎(02)786-2999

